

辨證玉函 『虛症實症辨』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고승욱¹ · 서종철¹ · 정현영¹ *

A Study on Heojeungsiljeungbyeon(虛症實症辨) of the Byunjeung-okham(辨證玉函)

Ko Seung-uk¹ · Seo Jong-chul¹ · Jeong Heon-young¹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Byunjeung-okham(辨證玉函)』 is composed of four volumes, Eumjeung-yangjeungbyun(陰症陽症辨, Vol.1), Heojeungsiljeungbyeon(虛症實症辨, Vol.2), Sangjeunghajeungbyun(上症下症辨, Vol.3) and Jinjeunggajeungbyun(眞症假症辨, Vol.4) (卷之一「陰症陽症辨」, 卷之二「虛症實症辨」, 卷之三「上症下症辨」, 卷之四「眞症假症辨」). It is based on the 74 types of disease symptoms, and compared to 『Byunjeungrok(辨證錄)』, it is rather brief and concise. Thus, its name, 『Byunjeung-okham』.

This study researched vol.2, 『Heojeungsiljeungbyeon(虛症實症辨)』, which is organized according to the deficiency and excess pattern of 20 disease patterns, such as cough. The disease pattern system mentioned in this book is unique compared with other disease pattern systems. The role of the kidney is especially emphasized, and the application of the Five-phase[五行] theory is very original. Consequently, it contributed greatly in the process of broadening the disease pattern system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ey Words : Byunjeung-okham(辨證玉函), Eumjeung-yangjeungbyun(陰症陽症辨),
Byunjeungrok(辨證錄)

I. 序論

陳士鐸은 清代의 醫家로서 字는 敬之, 號는 遠公, 別號는 朱華子, 自號는 大雅堂主人인데, 浙江省 紹興縣 사람으로 生存年代는 大략 1627年에서 1707年 사이이다.¹⁾ 남아있는 그의 著書로는 『辨

證玉函』 외에도 『外經微言』·『脈訣闡微』·『本草新編』·『石室秘錄』·『辨證奇聞』·『辨證錄』·『洞天奧旨』가 있다.

『辨證玉函』은 卷之一「陰症陽症辨」, 卷之二「虛症實症辨」, 卷之三「上症下症辨」, 卷之四「眞症假症辨」의 4卷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74種類의 病症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辨證錄』에 比較하여 簡略하게 要約되어 있으므로 『辨證玉函』이라 하였다.²⁾

* 교신저자 : 정현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jikjae@wonkwang.ac.kr
Tel : 063-850-6808

접수일(2009년 4월 21일), 수정일(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1) 柳長華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 醫學全書. 北京. 中

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37.

2) 柳長華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4.

『辨證玉函』이 저술된 시기는 自序가 없어서 명확하지 않으나 『辨證錄』이 著述된 康熙丁卯(1687년) 이후와 王之策이 『辨證玉函』을 訂定한 뒤 「辨證玉函弁言」을 쓴 康熙癸酉(1693년) 사이로 推定된다. 『辨證玉函』의 版本으로는 王之策이 訂定하여 康熙 癸酉(1693年)에 刊行된 한 종류이다.³⁾

『辨證錄』 自序에 따르면 康熙 丁卯年(1687년) 가을 陳士鐸은 燕市에 머무를 때 二老를 만나 『素問』과 『靈樞』에 대하여 論하고 辨脈과 辨證함에 그 當時와는 다른 奇異한 내용을 듣게 된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二老로부터 모든 내용을 듣고서 이를 五個月 동안 校閱하다가 世上에 나가서 著書하라는 말을 듣고 물러 나와 記憶에 의거하여 책을 짓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⁴⁾ 이로 미루어 보면 陳士鐸이 『辨證玉函』을 著述하면서 辨證에 대한 내용 역시 당시의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事例는 『辨證玉函』을 비롯한 그의 여러 著書에서 “누가 알았으랴!(誰知)” 또는 “~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不知).”는 식의 표현이 자주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辨證玉函』의 卷之一「陰症陽症辨」에는 31種, 卷之二「虛症實症辨」에는 20種, 卷之三「上症下症辨」에는 8種, 卷之四「眞症假症辨」에는 15種 모두 74種의 病症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重複해서 論하고 있는 病症은 대략 20種이며, 세 곳에서 重複하여 論하고 있는 病症도 5種이다.

以上 두 가지 사실은 『辨證玉函』의 辨證體系가 당시의 辨證과는 특이하고, 한 가지의 病症에 대하여 多角度로 살펴보았으며, 陳士鐸의 醫學思想이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海外에서는 陳士鐸의 醫學思想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國內에는 洪의 『國譯石室秘錄』⁵⁾과 盧의 『外經』⁶⁾, 『辨證奇聞講義 本草秘錄

辨證玉函』⁷⁾, 『新編辨證奇聞上·下』⁸⁾, 『外科秘錄』⁹⁾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原文에 대한 校勘이나 懸吐와 註釋이나 考察 없이 모두 단순히 原文을 國譯을 하였고, 徐¹⁰⁾의 연구로부터 비로소 원문에 校勘·懸吐 및 註釋과 考察을 하기 시작하여 陳士鐸의 學術思想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에 기존의 觀點과는 다른 辨證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臨床에 活用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研究를 하였다.

II. 研究方法

『辨證玉函·虛證實證辨』을 內容에 따라 20節로 나누어 각 節마다 原文·註釋·國譯·考察의 순서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康熙 癸酉에 王之策이 訂定한 上海中醫學院 圖書館 殘本¹¹⁾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原文에 懸吐하여 읽고 理解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고, 現代化하도록 노력하였다.

다. 校勘은 康熙 癸酉에 王之策이 訂定한 것을 底本으로 삼아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刊行한 것¹²⁾과 비교하여 著者が 옳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原文을 고쳤으며, 이를 脚註로 달아 밝혀 놓았다.

라. 註釋은 有關 書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引用하였고, 玉篇·字典·辭典에서 引用한 것은 考察 등

7) 盧瑛均 編譯, 辨證奇聞講義 本草秘錄·辨證玉函, 대진, 문원출판사, 2005.

8) 盧瑛均 編譯, 新編辨證奇聞上·下, 大田, 周珉出版社, 2005.

9) 盧瑛均 編譯, 外科秘錄, 大邱, 大邱廣域市 韓醫師會 學術委員會, 2007.

10) 徐鍾哲, 辨證玉函 「陰症陽症辨」에 대한 研究, 益山,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7.

11) 陳士鐸 撰, 王之策 訂定;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12) 柳長華 主編, 明清 名醫全書大成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柳長華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

4) 柳長華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 醫學全書 辨證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96.

5) 洪元植 譯, 國譯石室秘錄, 書苑堂.

6) 盧瑛均 編譯, 外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4.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脚註를 달지 않았다.

마. 脚註는 原文의 校勘誤字脫字와 內容의 理解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만 달았다.

바. 國譯은 直譯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부분은 본래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意譯을 하였다.

사. 原文에 提示된 處方 가운데 處方名은 있으나 構成이 없는 기존의 處方은 謝觀의 『東洋醫學大辭典』¹³⁾에서 인용하여 注釋에 실었다.

아. 處方에 있는 藥材의 重量은 清代의 度量衡에 따라 ‘1錢’은 3.73g, ‘1兩’은 37.3g이며¹⁴⁾, 度量衡 가운데 ‘個’와 ‘粒’ 등은 個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자. 考察 가운데 「陰症陽症辨」에서 나오는 處方은 卷末에 별도로 가나다 順으로 실어 놓았다.

Ⅲ. 研究內容

辨證玉函卷之二

虛證實證辨

第 1章 咳嗽

【原文】

咳嗽之宜辨虛實也니 初嗽之時엔 多是實하고 久嗽之後엔 多是虛라

第 1節 咳嗽實症

【原文】

肺主皮毛하니 一感風寒하면 便成咳嗽하야 痰氣住于胃脘之間而不得散하야 鼻塞流涕而不已하고 其咳嗽之聲必響하며 其吐痰亦必或黃或綠하며 重且身熱而喉痛¹⁵⁾乾하며 胸中膨悶而不可解하니 此는 皆

邪氣之實也라 若以爲虛하야 而動用補劑면 則邪未散而氣更壅滯矣라 故로 初起之嗽엔 必須用風藥解散爲第一이라 惟世人治嗽에 實多其方이나 然이나 得其法者는 無幾也라 吾今酌定一方하야 可以爲永遠之式하니 方名寧嗽丹이라 此方은 祛風祛痰하고 又不耗氣하야 治初起之咳嗽에 殊有神功하니 大約二劑면 無不愈者라 此는 治實症之咳嗽하니 人幸存而收之면 又何必用柴胡防風하야 過于消散哉아

寧嗽丹

甘草二錢 桔梗三錢 黃芩一錢 陳皮一錢 天花粉二錢 麥冬三錢 蘇葉一錢 水煎服

寧嗽丹

甘草二錢 桔梗三錢 黃芩一錢 陳皮一錢 天花粉二錢 麥冬三錢 蘇葉一錢 水煎服

第 2節 肺虛嗽症

【原文】

至於肺虛嗽症하야는 非脾胃之虛면 卽腎肝之潤也라 咳嗽至于日月之久나 若有風邪하면 卽不服藥이라도 亦宜自散이나 今久而不愈는 因脾氣不健하야 土不能生肺金則邪欺肺氣之無親이온 況土虛則肝木必然過旺하니 又來克脾하야 而金弱不能相制하면 則邪欺無所顧忌하야 盤踞于肺中而不去하야 或日久而成嗽也라 然이나 何以知其脾氣之虛하야 以致其久嗽之已오 論其飲食이면 則能食而不能消하고 口欲餐而腹又飽하고 或瀉瀉而無休커나 或小便之不謹이 皆是脾虛作嗽也라 法當用培土之味하고 而益之止嗽之品이니 方名土金丸이라 每日白滾水送下五錢이면 半料卽全愈라 此方은 全不治嗽而嗽自安이라 盖健脾之氣而肺氣有養이면 邪自難留 故로 不止嗽而嗽自己也라

土金丸

白朮三兩 茯苓三兩 甘草一兩 人蔘一兩 半夏一兩 桔梗一兩 白芍三兩 麥冬三兩 乾薑一兩 神麴五錢 陳皮五錢 薏仁三兩 各爲末 蜜爲丸

보아서 바꾸었다.

13)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70.

14) 金尙寶羅永雅. 古代 韓國의 度量衡 考察,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994, 4권 1호, p.7.

15) 底本에는 “噓”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噓”의 오자로

土金丸

白朮三兩 茯苓三兩 甘草一兩 人參一兩 半夏一兩
桔梗一兩 白芍三兩 麥冬三兩 乾薑一兩 神麴五錢 陳
皮五錢 薏仁三兩 各爲末 蜜爲丸

第 3節 肝虛嗽症

【原文】

肝經之虛가 以致久嗽者는 何故오 肺金本克肝木이
나 肝木之虛면 肺金免乎制伏하야 宜于肺氣之有養矣
로대 何得反致咳嗽이오 不知肝木之氣는 必得肺金之
制而木氣始能調達이라 今因肝木素虛而風又襲之면
筋不能疏하고 益加抑鬱而不伸하니 此咳嗽之未能痊
也라 法當舒肝中之鬱하고 滋肝中之津하야 而金氣始
能彼此之相通而不致上下之相隔이라야 庶幾有嗽有止
時也라 然而肝虛之症을 又從何而辨之오 問其人이
必兩脇作脹悶之狀하며 或左邊之疼痛而手不可按커나
或面目之青黑而氣無開커나 或胃脘¹⁶⁾作酸而欲吐커나
或痰結成小塊而咽在喉嚨커나 或逢小怒而咳嗽更甚하
면 此는皆肝虛咳嗽之病也라 世人이 治肝經之咳嗽에
原無方法하고 動以老痰呼之는 誤¹⁷⁾之甚矣라 吾今立
一方하야 專治肝虛作嗽之症하니 神效之極이 方名木
金兩治湯이라 此方之妙는 全去舒肝而不去治肺이라
蓋久嗽則肺氣已虛이온 何可又虛其虛 故로 不用風藥
以散肺金之氣也라 然則何不補肺金之氣耶아 不知肝
虛所以久嗽하고 若又去助肺하면 則仍又致肝木之不
得伸하니 何若竟補肝舒木之爲得耶아 況方中祛痰祛
風于表裏膽膈之間에 又未嘗不兼顧肺邪也니 此方之
所以神而妙耳라

木金兩治湯

白芍一兩 當歸五錢 柴胡三錢 炒梔子二錢 蒼朮二
錢 甘草一錢 神麴一錢 白芥子三錢或五錢 防風五分
枳殼五分 水煎服

木金兩治湯

白芍一兩 當歸五錢 柴胡三錢 炒梔子二錢 蒼朮二

錢 甘草一錢 神麴一錢 白芥子三錢或五錢 防風五分
枳殼五分 水煎服

第 4節 腎虛嗽症

【原文】

腎虛之嗽는 更自難明하니 肺爲腎之母요 子母相戀
하니 豈有相忌而作嗽之理리오 殊不知肺金之氣는 夜
臥必歸息于腎宮하니 所謂母藏子舍也라 今肺金爲心
火風邪所凌逼하면 既無衛蔽勤解之人하고 又無祛逐
戰爭之士하야 束手受縛하고 性又不甘하니 自然投避
子家하야 號召主伯亞旅以復其仇에 子母關切하니 安
忍坐視리오 自然統領家人騰上祛邪나 無奈強隣勢大
하고 賊衆瞞天하며 而子又國衰民弱하야 不能拒敵하
고 逃竄披靡하야 肺金之母不得已仍回己家하고 而腎
宮子水는 敵既未除而家人星散하고 亦且民作爲盜하
니 不復仇而反助仇矣라 于是水化爲痰하니 終年咳嗽
而不能愈也라 法當專補腎水而兼益肺金之氣면 其症
始可安然이라 然이나 腎虛作嗽之症을 若何辨之오
飲食之味를 可飲可食하야 全無相碍하고 惟是晝輕夜
重하며 夜汗則淋漓하고 或夜熱之如火하며 或聲嘶而
口不乾하며 或喉痛而舌不燥하고 痰涎純是清水하야
投之水中而立化하며 或如蟹之涎하야 純是白沫이 皆
腎虛咳嗽之症也라 論方에 莫妙用八味黃湯에 去桂附
加麥冬五味하니 大劑¹⁸⁾煎飲이면 必能奏功如響이라
然而可作丸而不可作湯이니 誠恐世人不知倦於修合하
야 吾今另定奇方하야 可代地黃之湯也니 方名이 水
金兩治湯이라 此方은 奇絶하야 補腎補肺而又加去火
之劑하야 使骨髓之虛火皆安하니 又何慮外邪之相犯
이리오 腎中이 不熱則水氣相安하야 自然化精而不化
痰이온 況方中에 又有薏仁 車前하야 以利其膀胱之
氣하고 分消敗濁而精益能生하니 非漫然而用之也아
願人加意吾方하야 以治腎虛之咳嗽면 又奚至經年累
月에受無窮之累哉아

水金兩治湯

熟地一兩 山茱萸五錢 麥冬一兩 北五味三錢 車前
子三錢 薏仁一兩 玄參三錢 地骨皮五錢 牛膝二錢 水

16) 底本에는 “胃脘”으로 되어 있으나, “胃腕”으로 바꾸었다.
17) 底本에는 “悞”로 되어 있다. ‘悞’와 ‘誤’는 通用한다.

18) 底本에는 “大濟”로 되어 있으나 “大劑”가 옳으므로 원문
을 고쳤다.

煎服

水金兩治湯

熟地一兩 山茱萸五錢 麥冬一兩 北五味三錢 車前子三錢 薏仁一兩 玄蔘三錢 地骨皮五錢 牛膝二錢 水煎服

【考察】

咳嗽을 初嗽와 久嗽로 구분하여 初嗽는 實症, 久嗽는 虛症으로 분류하였으며, 實症은 風寒邪가 原因으로 祛風祛痰하면서도 正氣를 耗損하지 않는 寧嗽丹을 사용하였다. 虛症은 肺虛가 原因인데 肺虛하게 된 理由를 다시 脾虛肝經之虛腎虛를 지적하였다. 脾虛로 인한 咳嗽는 培土를 주로 하고 益止嗽하는 治法으로 土金丸을 사용하고, 肝經의 虛로 인한 咳嗽는 舒肝中之鬱滋肝中之津하는 治法으로 金木兩治湯을 사용하고, 腎虛로 인한 咳嗽는 補腎水하고 肺金之氣를 함께 補益하는 治法으로 水金兩治湯을 사용하였다.

또한 咳嗽를 「陰症陽症辨」에는 陰症과 陽症으로 구분하여 初起의 咳嗽는 陽邪에 感觸된 것이 原因이며, 오래된 咳嗽는 陰氣虛가 原因¹⁹⁾이라고 하여 본 편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러나 「陰症陽症辨」에 다시 “그러나 이러한 理論에 拘碍되어서는 안 된다. 初起의 咳嗽라도 陰虛한 경우가 있고, 오래된 咳嗽라도 陽虛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分辨하지 않을 수 없다.”²⁰⁾고 하였고, 또 “어떠한 것이 처음 발생함에 陰經을 侵犯하게 된 것인가? … 비록 風邪의 침범이 있었더라도 陰虛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 어떠한 것이 오래되었는데도 오히려 陽經에 邪氣가 있는 것인가? … 陽氣가 虛하지 않은데 邪氣가 들어와 흠어지지 않은 것이다.”²¹⁾고 한 것으로 보면 陰症은 初起의 경우라도 陰虛하여 발생되

는 咳嗽를, 陽症은 咳嗽가 오래된 경우라도 陽氣가 虛하지 않고 邪氣가 除去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東醫寶鑑』咳嗽門에는 海수의 原因을 “몸이 찰 때도 찬것을 마시면 폐(肺)가 상하게 되는데 폐가 상하면 기침이 난다.”라²²⁾하였고 “해(咳)라는것은 가래는 나오지 않고 소리만 나는 것인데 이것은 폐기(肺氣)가 상하여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수(嗽)라는 것은 소리는 나지 않고 가래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비습(脾濕)이 동하여 가래가 생기는것이다. 해수(咳嗽)라는 것은 가래도 나오고 소리고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폐기도 상하고 비습도 동하여 해(咳)와 수(嗽)가 겹치게 되는것이다.”²³⁾ 음식과 외감으로 보았으며 風嗽 寒嗽 熱嗽 濕嗽 鬱嗽 勞嗽 食積嗽 氣嗽 痰嗽 乾嗽 血嗽 酒嗽 久嗽 火嗽 夜嗽 天行嗽 16종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편과 「陰症陽症辨」 『東醫寶鑑』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基本的으로 咳嗽를 初起는 實症으로, 오래된 것은 虛症으로 구분하지만, 例外的으로 初起의 實症인 경우라도 陰虛한 陰症이 있고, 오래된 虛症의 경우라도 陽氣가 아직 虛하지 않고 邪氣가 남아있는 陽症이 있는 것으로 細分化한 것으로 思料된다.

症狀에 있어서의 차이는 實症은 코가 막히고 콧물이 그치지 않고 咳嗽하는 소리가 반드시 울리고 뱀어내는 痰 역시 반드시 黃色이거나 綠色이며 또한 身熱이 있으면서 목이 아프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여 풀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虛症 가운데 脾虛로 인한 咳嗽의 症狀은 飲食을 먹을 수는 있으나 消化를 시키지 못하고, 입맛은 당기지만 조금만 먹어도 飽滿하고, 혹은 瀉瀉를 하면서 그치지 않거나 혹은 小便을 참지 못하며, 肝經의 虛로 인한 咳嗽는 兩脇部가 脹悶하며 혹은 왼쪽의 脇部가 아파서 손을 댈 수 없거나 혹은 面目의 靑黑色이 없어지지 않거나 혹은 胃脘이 괴로우면서 吐하려고 하거나 혹은 痰이 멎쳐져서 작은 덩어리가

19)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26. “咳嗽初起多是陽邪之感 咳嗽日久多是陰氣之虛”
20)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26. “然亦不可拘于此論也 有初起而即是陰虛者有 日久而仍是陽虛者又不可不辨也”
21)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27. “何以見初起之即犯陰經也…雖有風邪襲之終是陰虛邪然… 何以見日久之猶是陽經也…此陽氣之未虛而邪氣憑之而不散也”

22)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467. “形寒飲冷則傷肺肺傷則咳嗽”
23)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467. “咳謂無痰而有聲肺氣..嗽謂無聲而有痰脾濕動而爲痰也 咳嗽者…肺氣動於脾濕故咳而兼嗽也”

삼키면 喉嚨에 걸리거나 혹은 조금만 화를 내면 咳嗽가 더욱 심해지고, 腎虛로 인한 咳嗽는 飲食은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서 전혀 障礙가 없고 오직 症狀이 낮에는 가벼우나 밤에는 심해지고 밤에 痰을 줄줄 흘리며 혹은 밤에 熱이 불처럼 나거나 혹은 聲嘶하지만 口乾하지 않거나 혹은 咽喉가 아프지만 혀가 마르지 않고 痰涎이 순전히 清水와 같아서 물에 뉘으면 즉시 물과 같이 되거나 혹은 게거품처럼 순전히 白沫과 같은 것이 특징이다.

第 2章. 喘症

第 1節 實喘症

【原文】

喘症之有虛實也라 喘症이 遇風而發하면 此는實邪也니 可散邪而病輒愈라 其症이 喉作水鷄聲하고 喘必擡肩하고 氣悶欲死하면 視其勢若重而其因實輕이니 蓋外感之病而非內傷之患也라 方用射干止喘湯하니 一劑即愈요 不必再劑也라 此方은 雖皆祛邪散風之品이나 而有補益之味以相制하니 邪去而正氣無虧라 倘無補味存乎其中하고 但有散而不補면 風邪雖去하고 喘亦頓除나 後日에 必有再感之患하니 不若乘其初起之時에 預作綢繆之計也라

射干止喘湯

射干二錢 柴胡一錢 麥冬三錢 茯苓三錢 半夏三錢 甘草一錢 天花粉一錢 黃芩一錢 蘇子三錢 百部一錢 水煎服

第 2節 虛喘症

【原文】

至于虛喘하야는若何오 口中에微微作喘而不至擡肩하니 蓋短氣之症은 似喘而非喘也라 問其症이 必有氣從臍間上沖하야 便覺喘息不寧이라 此는 乃腎虛之極이니 元陽이 止有一線之微하야 牽連未絕而欲絶也라 法當大補腎宮之水而兼補元陽之氣하면 則虛火下潛而元陽可續하니 方用生水歸源散이라 此方은 神而更神하야 此等之病에 非此等之方이면 不能回元氣于將亡하니 補眞水之乖絶²⁴⁾하면 一劑而喘輕하고 再劑

而喘定하고 三劑四劑而安寧矣라 庶幾身可眠하야 而氣無上沖之患矣라 倘不用吾方하면 自必斃라 或少減이라도 乃亦能奏效나 然而曠日遲久하면 徒增困頓하니 與其後日에 多服藥餌過于吾方之다가 何若乘其初起之時에 卽照吾定之方而多與之痛飲하야 能去病之爲快哉리오

生水歸源散

熟地三兩 山茱萸一兩 人蔘三兩 牛膝五錢 麥冬三錢 車前子五錢 北五味三錢 胡桃仁五個 生薑五片 水煎服

【考察】

喘症의 實症은 原因이 風邪로서 外感病이며, 祛風散邪의 治法을 주로 하고 다만, 邪氣를 除去하기만 하고 補를 하지 않으면 後日에 再發할 수 있으므로 補益을 兼하여 射干止喘湯을 사용한다. 虛症은 腎虛가 原因으로서 腎水를 大補하면서 元陽之氣를 함께 補하는 治法으로 生水歸源散을 사용하였다.

「陰症陽症辨」에는 喘症을 陰症과 陽症으로 구분하였는데, 陽症은 外感風邪가 原因으로 蔘蘇飲 또는 小柴胡湯을 사용하며, 陰症은 腎氣大虛가 原因으로 腎氣를 크게 補하면서 腎中의 陰氣를 함께 補하는 治法으로 回絶神奇湯을 사용하였다.²⁵⁾

喘證을 본편에는 實症과 虛症으로, 「陽症陰症辨」에는 陽症과 陰症으로 구분하였는데, 實症과 陽症의 原因이 모두 風邪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각각의 증상으로 볼 때 實症과 陽症이 대체적으로 類似하지만 陽症의 경우에 背心寒冷-熨之火而不見其熱-吐痰如涌泉²⁶⁾과 같은 특징적 症狀이 있어서 陽症은 實症에 비교하여 原因이 風寒邪이며 痰이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虛症과 陰症도 原因이 모두 腎氣가 매우 虛弱한 점에서는 같고 治法 또한 虛症은 “大補腎宮之水而兼補元陽之氣”라

24) 底本에는 “乖絶”로 되어 있으나 “乖絶”로 고쳤다.

25)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p.79-80. “喘症一時而來者感外來之風邪也…用蔘蘇飲…用小柴胡湯加減用之…惟陰喘之症最爲可畏而又最難治療也…蓋腎氣大虛 欲離其根…方用回絶神奇湯”

26)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79.

하였고, 陰症은 “大補其氣而峻補腎中之陰”²⁷⁾이라 하여 서로 매우 비슷하나 陰症은 腎陽과 腎陰을 균등하게 補한 것에 비하여 虛症은 腎陽보다는 腎陰을 補하는 쪽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虛症과 陰症이 모두 腎虛의 범주에 속하나 虛症은 腎陰虛가 주된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咳嗽門 喘證有八篇에는 喘증의 원인을 “기에 화(火)가 몰려 걸쭉한 담(稠痰)이 폐와 위에 생겨서 된것이다.”²⁸⁾ 하였고 “폐는 기를 주관하는데 몸이 찰 때 찬것을 마시면 폐가 상하게 되어 폐기가 거슬러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때에는 숨쉬기 가빠하면서 헐떡거리고 숨결이 잦으며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몸을 흔들고 배가 불룩불룩해 진다.”²⁹⁾ 하였다 하여 火와 痰이 어울려 氣가 위로 오르면서 喘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風寒喘 痰喘 氣喘 火喘 水喘 久喘 胃虛喘 陰虛喘 8種類로 나누어 놓았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목에서 水鷄聲이 나고 어깨를 들먹이며 喘息을 하고 숨이 답답하여 죽을 것 같고, 虛症은 氣가 배꼽으로부터 치밀어 올라서 문득 喘息을 하여 편안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陽症은 呼吸이 급하여 순조롭지 못하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어깨를 들먹이며 등 가운데가 寒冷하고 땀을 뜨나 그 熱感을 느끼지 못하고 痰을 吐하기를 셈숫듯이 하고 편안히 누워있지 못하고, 陰症은 喘息의 증상이 있고 자리에 눕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약간 감소하고 대부분 눈을 부릅뜨고 咳嗽가 끊이지 않고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第 3章 雙蛾

【原文】

雙蛾症之虛實은 從何辨之오 大約外感者爲實하고 內傷者爲虛로대 而外感內傷을 又從何而辨之오

第 1節 外感雙蛾

27)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80.
28)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474. “喘急者氣因火鬱而成稠痰在肺胃也”
29)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474. “喘者肺主氣形寒飲冷則傷肺故…衝衝而氣急喝 喝而息數…是謂喘也”

【原文】

大約外感者는 鼻必塞³⁰⁾하고 舌必燥하고 身必先熱而後寒하고 痰必黃하고 而白目必赤而浮하니 此邪氣之實也라 用殺蛾丹治之호대 用鵝翎吹入喉中하면 必吐痰涎碗許而愈하니 神方也라

殺蛾丹

硼砂一分 丹砂三分 牛黃一分 冰片一分 芽茶一錢 射香一分 石膏一錢 各爲絶細末

殺蛾丹

硼砂一分 丹砂三分 牛黃一分 冰片一分 芽茶一錢 射香一分 石膏一錢 各爲絶細末

第 2節 內傷雙蛾

【原文】

內傷者는 雖同是爲蛾로대 喉腫而日間少輕하고 痰多而舌必不燥하고 吐痰如湧泉하고 而下身必畏寒하고 兩足必如冰冷하니 此는正氣之虛也라 用八味湯이면 必然奏功이라 吾今更定一方하니 名爲三經同補湯³¹⁾이라 此方之妙는 妙在水中補火하니 水足而肺經有養하고 亦火溫而土氣有生則肺經兼有養也은 況方中原有生肺之品而肺金有不安寧者哉며 肺腎脾三經俱安則邪何所藏이리오 自難留戀于皮膚之內하니 邪退則腫自消하야 雙蛾頓失其形하니 眞有莫知其然而然者矣라

三經同補湯³²⁾

熟地一兩 山茱萸五錢 麥冬一兩 北五味二錢 薏仁一兩 肉桂二錢 人蔘一錢 白芥子五錢 茯苓五錢 白朮五錢 水煎服

【考察】

實症의 原因은 邪氣實로서 外感病이며, 虛症의

30) 底本에는 “鼻必寒”으로 되어 있으나 “鼻必塞”으로 고쳤다.
31) 底本에는 “三陸同補湯”으로 되어 있으나 原文의 내용상 “三經同補湯”이 옳다.
32) 底本에는 “三陸同補湯”으로 되어 있으나 原文의 내용상 “三經同補湯”이 옳다.

原因은 正氣虛로서 內傷病으로 實症과 虛症을 구분 하였다.

「陰症陽症辨」에는 雙蛾의 原因이 모두 火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陽症은 原因이 陽火로서 少陰實火이고, 陰症은 陰火로서 陰虛火動하기 때문에 발생 되는 차이가 있다.³³⁾

『東醫寶鑑』咽喉門에는 후두개 양방으로 종이 있는것을 쌍유아라 하였고 한쪽에만 종이 난것을 단유아라 하였으며 ³⁴⁾ 원인을 熱로 보았고 單乳蛾가 雙乳蛾보다 치료가 어렵다고 기록하였다.

현대의학적으로는 雙乳蛾는 구개편도(口蓋扁桃:palatine tonsil)의 급성 염증을 말하며 대부분 인두점막(咽頭粘膜)의 염증을 동반한다. 원인으로 바이러스(virus)에 의한 상기도 감염의 경과중 세균의 2차감염 또는 세균의 직접감염이 편도에 발생하여 생긴다. 기후변동 과로 과음 과식등이 유인(誘因)이 될수 있고, 증상으로는 인두통(咽頭痛:pharyngodynia) 연하통(嚥下痛:odynophagia) 전신권태 및 고열이 가장 흔하다.치료는 안정과 충분한 수분섭취, 가벼운식사를 하게하고 아스피린 코데인 등을 투여하여 인후의 불쾌감과 동통등을 덜어준다.³⁵⁾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코가 반드시 막히고 혀가 반드시 마르고 몸이 반드시 먼저 發熱하다가 惡寒하며 咯痰이 반드시 黃色이고 흰자위가 붉으면서 부어오르며, 虛症은 咽喉의 浮腫이 낮에는 조금 輕減하고 咯痰은 많으나 혀가 반드시 마르지 않고 咯痰을 샘물처럼 토해내면서 下半身이 반드시 畏寒하고 兩足이 반드시 얼음처럼 차가운 특징이 있다. 陽症은 목구멍이 우선 건조한 상태가 되고 매우 갈증이 나 물을 마시고 痰이 胸膈에 맺혀 吐하려고

하나 나오지 않고 삼키려 하나 넘어가지 않고 목구멍에 腫脹이 생기고 혀가 심하게 붉어지고 목구멍 양쪽이 닭의 벼슬같이 되어 밖으로 부어오르고 낮에는 痛症이 매우 심하고 밤에는 약간 안정되며 혀는 선명하고 눈을 반드시 붉고, 陰症은 雙蛾의 형태가 있으나 심하게 아프지 않고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 아프지 않으며 夜間에 痛症이 심하고 晝間에 痛症이 輕減되며 찬물을 마셔 목구멍을 넘기면 상쾌하고 약간 시간이 지나면 편안하지 않고 胸中이 팽창하고 大便은 평소와 같고 小便은 맑게 잘 나오나 색은 黃色이고 澀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第 4章 目痛

第 1節 目痛實症

【原文】

目痛에 有虛有實하니 實痛之症은 必然紅腫流淚하고 結眵하며 或如錐傷하고 或如射入하고 羞明喜暗하고 見日光而如觸하고 對燈影而若刺하고 起障生星하고 發寒發熱하고 吐痰吞酸하고 大便實而小便黃하니 此는 皆邪火之實症也라 治之法은 必須散邪解熱祛痰爲主니 倘遽以補藥爲先하면 愈助其火勢之焰하고 痰且不得消而邪且不易散이라 方用瀉火全明湯하여 治之니 此方之妙는 妙在用玄蓼之多하여 以解散浮游之火라 而各藥이 無非入肝舒木之品하고 去濕熱而除風邪하고 消痰結而培土氣하니 不治目而正所以治目也라

瀉火全明湯

柴胡二錢 草決明三錢 甘菊花二錢 玄蓼五錢 炒梔子二錢 甘草一錢 天花粉三錢 白芍三錢 澤瀉一錢 車前子一錢 龍膽草一錢 水煎服

第 2節 目痛虛症

【原文】

虛痛之症은 色必淡紅³⁶⁾而亦不甚痛하고 雖羞明而無淚하고 雖畏明而無星하고 大便如平時하고 小便必

33)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p.54-56. “雖此症皆起于火而火有不同陰火陽火之異…陽症如何…萬不可與溫熱之藥 倘誤與之立時發狂矣…此方之妙 妙在山豆根之多用此物最消少陰之實火…若陰症之雙蛾也…此皆陰虛火動之故 莫妙用八味地黃湯…蓋八味丸專 補命門之火 下熱而上熱自消 龍雷之火 非眞火 不能引之歸經耳”

34)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52. “會厭之兩傍腫者俗謂之雙乳蛾易治 會厭之一邊腫者俗謂之單乳蛾亂治”

35) 李榮基. 原色最新醫療大百科事典 19권. 서울. 新太陽社. 1991. p.17.

36) 底本에는 “色必淡紅卽紅”으로 되어 있으나 “色必淡紅”으로 고쳤다.

淸長하고 有痰亦不黃하고 畏寒而無涕하니 此는 腎肝之虛症也라 治之法은 必須補水舒肝爲主니 倘然以逐邪散火爲先하면 勢必輕變重而重必變盲矣라 方用溫補救目散하야 治之니 此方은 肝腎兩補호대 而尤注意于肝하니 雖肝木之枯가 由于腎水之竭하야 以致肝木不能養目이나 然而肝氣는 雖必得腎水以相資로대 必竟目爲肝養하니 補肝則目自然有光 故로 補腎尤須補肝之爲先也라 世人的 治虛眼之方은 原無佳法하야 一見目痛하고 動以風藥治之하야 往往壞人之目하니 倘聞吾之教而辨其虛實하야 毋論或先或後하고 實者用前方하고 虛者用後方하면 則目病必能隨手回春하니 何致有失明之嘆哉아 可見虛實之必宜辨明而用藥之不宜少差也라

溫補救目散

熟地五錢 當歸五錢 白芍一兩 山茱萸五錢 甘菊花五錢 萎蕤五錢 枸杞三錢 薏仁五錢 柴胡五分 車前子二錢 白芥子二錢 水煎服

溫補救目散

熟地五錢 當歸五錢 白芍一兩 山茱萸五錢 甘菊花五錢 萎蕤五錢 枸杞三錢 薏仁五錢 柴胡五分 車前子二錢 白芥子二錢 水煎服

【考察】

實症은 邪火가 實한 것이 原因으로서 散邪解熱祛痰을 爲主로 治法을 삼아 瀉火全明湯을 사용하고, 虛症은 肝腎虛가 原因으로서 補水舒肝을 爲主로 治法을 삼아 溫補救目散을 사용한다. 治法에 있어서 “肝開竅於目”의 原理에 따라 實症이나 虛症 모든 경우에 舒肝을 함께 응용한 특징이 있다.

「陰症陽症辨」에는 陰症과 陽症으로 구분하였는데, 陽症은 火가 心腹의 가운데에 맺혀 肝木의 氣가 鬱結되어 생기는 것으로 開鬱祛風의 治法으로 開目散을³⁷⁾ 사용하였고, 陰症은 腎水가 不足하고 耗損되어 肝木을 滋潤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만드시 순수하게 眞陰을 補하는 治法으로 養日至神湯을³⁸⁾ 사용하였다.

『東醫寶鑑』眼門에는 “眼病無寒 眼無火不病”라³⁹⁾ 하여 火가 아니면 目痛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안병이 발생하는 생활원인을 “生食五辛 接熱飲食 刺頭出血多 極目遠視 夜讀細書 久處烟火 夜間讀書 飲酒不已 熱食麵食 抄寫多年 泣淚過多 房室不節 數向日月輪看 月下讀書 夜視星月”라⁴⁰⁾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만드시 붉게 눈이 붓고 눈물을 흘리고 눈곱이 많이 끼고 혹은 송곳에 찢린 듯이 아프고 혹은 눈에 무언가 낀 것 같고 밝은 것을 싫어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햇빛을 보면 마치 무언가 닿는 듯 하고 등불을 보면 찌르듯 아프고 白內障과 斑點이 생기고 惡寒發熱이 있고 吐痰과 吞酸을 하고 大便은 단단하고 小便色은 黃色이며, 虛症은 색이 만드시 淡紅하고 痛症 또한 甚하지 않고 비록 밝은 것을 싫어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고 비록 밝은 것을 꺼리지만 斑點은 없으며 大便은 정상이고 小便은 맑고 잘 누며 痰이 있으나 黃色이지는 않고 畏寒하기는 하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陽症은 만드시 눈이 부시고 밝은 것을 싫어하고 大眦가 만드시 불처럼 붉고 小眦는 도리어 淡紅色이며 痛症은 찌르는 듯 하고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며 혹은 渴症이 있고 痰이 생기며 혹은 몸에 寒熱이 그치지 않고, 陰症은 처음 발생할 때는 약간의 痛症이 있으나 그리 심하지는 않고 大眦는 붉지 않고 小眦는 붉은 血색이 있고 혹 小眦는 붉지 않고 온 몸에 赤송아 색이 있고 눈물이 흐르지 않고 눈곱도 없고 낮에는 약간 호전되고 밤에는 도리어 중하고 비록 눈부심이 있으나 심하지 않고 瞼속에 때 때로 배고픔이 있고 배가 고프면 아픈 것이 배부를 때보다 심하게 느껴지고 해는 바라볼 수 있으나 燈火는 볼 수가 없고 大便은 무른 경우가 있고 小便은 도리어 맑고 혹은 밤에 發熱하는 경우도 있고

38)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p.51- 52. “此皆腎水虛耗 不能滋潤肝目…必須用純補眞陰之藥…予今定一方救之 實有神功 名爲養日至神湯”

39)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14.

40)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14.

37)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50. “此皆火壅于心腹之間 肝木氣鬱而成此目痛也…法當開鬱祛風之劑 方用開目散”

몸에 땀이 그치지 않고 나는 특징이 있다.

第 5章 吐症

【原文】

吐症之虛實은 尤不可不辨이니 不知虛實而輕用藥餌하면 死亡立刻이니 可不慎歟아 吐有朝吐 暮吐 飽吐 飢吐 蟲吐 水吐之異라 朝吐者는 陽氣虛也요 暮吐者는 陰氣虛也며 飢吐者는 邪火之實也요 飽吐者는 寒邪之實也며 蟲吐者는 有虛有實하니 虛則寒而實則熱也요 水吐者는 吐黃水爲實이요 吐清水爲虛也라

第 1節 朝吐

【原文】

朝吐之病은 乃頭一日之食至朝而盡情吐出也니 此乃陽氣之虛라 陽氣者는 乃腎中之陽氣虛而非脾陽⁴¹⁾之虛也라 若徒以人蔘白朮로 以健其脾氣하면 亦終年累月而寡效하니 不助其腎中之火則釜底無薪하니 又何以蒸夫水穀이리오 此其症은 胃氣不弱 故로 能食之以藏于胃中이니 而胃既藏一宿하면 自當轉輸于脾矣나 而脾寒之極하야 下不能化하야 自然仍返于胃而胃不肯受而上反而出矣라 倘認之不清하고 皆爲胃氣之弱하야 仍用蔘芪之類면 則胃益健而脾之寒虛如故하니 何能使之下行哉리오 況脾氣既寒하야 下既不能推送則大腸久無水穀之養하니 亦且縮小라 卽或脾有殘羹剩汁이流入大腸에 而大腸乾枯하야 亦難潤導하니 勢不得不仍返之于咽喉而上出矣라 治之法은 急于腎宮溫之니 方用八味地黃丸이니 大劑煎服하면 始能水中生火하야 以煮土中之穀氣하고 脾土熱而傳化亦易하고 且大腸得腎水之滋潤則水穀亦可下達矣라

第 2節 暮吐

【原文】

暮吐者는 朝食而卽吐也며 亦由隨食而隨吐者니 此乃陰水衰之故라 胃中無液하면 不能潤喉하야 所以水穀下咽에 便覺棘喉 故로 隨食而隨吐하야 或朝食而暮吐也라 倘亦以胃之虛而錯用健脾開胃之劑하면 愈

41) 底本에는 “脾陰”으로 되어 있으나 “脾陽”으로 고쳤다.

助其火勢之炎蒸而食轉不能下咽矣라 法當用六味地黃丸湯하야 大劑煎服커나 或四物湯에 加人尿人乳하야 亦大劑煎服하면 庶幾可愈라 否則徒自苦而已矣라

第 3節 飽吐

【原文】

飽吐者는 因先有風邪入于胃中이러가 飲食入胃而胃氣得飲食之勢하면 難與邪氣相戰 故로 一湧而出이라 往往有一吐而病自愈者하니 所謂吐之卽發之也라 吐後에 用二陳湯加減調治之도 亦未爲不可라

第 4節 飢吐

【原文】

至于飢吐者하야는 腹中無食이니 何以作吐아 蓋寒邪入腹하면 挾腎水上凌于心하야 驅其火而外出也니 此乃至危之症이라 然而寒邪挾腎水而上衝者는 飽時亦有此病하니 終不若飢時之吐爲更重이라 法當以熱藥溫之니 方用理中湯하야 溫其命門之火하고 健其脾胃之士하야 使元陽無奔越이면 而厥逆有返還之慶也라

第 5節 蟲吐

【原文】

蟲吐之症은 雖有虛實寒熱之異나 而蟲吐則一也라 吾定一方하야 專治蟲而加減之可通治蟲吐矣라 方用定蟲丹하니 服後에 萬不可飲之茶水요 約二時可飲矣라 此方은 乃殺蟲之聖藥而又不十分耗氣하니 所以飲之而蟲死而痛亦隨之而定也라

定蟲丹

白芷一錢 苦楝根⁴²⁾二錢 枳殼一錢 使君子⁴³⁾十介槌碎 檳榔一錢 甘草一錢 白薇⁴⁴⁾三錢 榧子肉三錢槌碎 茯苓三錢 烏梅三個 水煎服 如熱加黃連一錢 寒加乾薑一錢 實加大黃二錢 虛加人蔘三錢

42) 底本에는 “苦練根”으로 되어 있다.

43) 底本에는 “史君子”로 되어 있다.

44) 底本에는 “白微”로 되어 있다.

定蟲丹

白芷一錢 苦楝根⁴⁵⁾二錢 枳殼一錢 使君子⁴⁶⁾十介
槌碎 檳榔一錢 甘草一錢 白薇⁴⁷⁾三錢 梔子肉三錢槌
碎 茯苓三錢 烏梅三個 水煎服 如熱加黃連一錢 寒加
乾薑一錢 實加大黃二錢 虛加人蔘三錢

第 6節 水吐

【原文】

水吐之病에 吐清水者는 乃脾氣之寒虛니 不若吐黃
水者胃氣之實熱也 故로 最宜辨清이라 喻嘉言이 謂
吐清水者有水窠之異하니 不然이면何以吐水而絶不吐
食耶라하니 其言則是而看症은實非하니 胃口之中에
那有更生一窠囊之理라 不知脾氣寒虛則水不能分消하
야 專聚于脾하고 而不知一經泛濫則傾腸而出하니 而
胃中糟粕이何以絶無리오 此又有故存焉이라 盖胃氣
之行은 原稟令于脾土하니 裏病而表亦病하고 脾病而
胃病也라 脾之水가 既然上溢하면 胃之水도 亦必然
上行이라 脾之氣가 使糟粕不出하면 胃之氣도 亦使
糟粕不出也라 喻生이 不知其妙하고 以物理窺藏府하
니 淺哉之見也라 此等之病은 必須健脾胃⁴⁸⁾而加之重
墮之品이요 而不可單尙寒竅之藥하야 以專恃乎阻抑
之也라 方用過水丹하니 一劑而吐止하고 再劑而全愈
하고 三劑而吐不再發이라 盖人蔘은補氣而白朮은止
水하야 二味原有奇功이요 況又加茯苓等類하야 以分
消其水勢之滔天하며 又用鹿角霜하야 以止流而斷路
하니 又何至上吐之奔越哉리오

過水丹

人蔘一兩 白朮二兩 茯苓一兩 肉桂一錢 乾薑二錢
鹿角霜一兩 水煎調鹿角霜末服

過水丹

人蔘一兩 白朮二兩 茯苓一兩 肉桂一錢 乾薑二錢
鹿角霜一兩 水煎調鹿角霜末服

【考察】

45) 底本에는 “苦楝根”으로 되어 있다.
46) 底本에는 “史君子”로 되어 있다.
47) 底本에는 “白薇”로 되어 있다.
48) 底本에는 “脾”로 되어 있으나 “脾胃”로 고쳤다.

吐症을 朝吐·暮吐·飽吐·飢吐·蟲吐·水吐로 구분하였
는데 이는 原因에 따른 分類로서 朝吐는 陽氣虛, 暮
吐는 陰氣虛, 飢吐는 邪火之實, 飽吐는 寒邪之實,
蟲吐는 다시 熱症은 實症, 寒症은 虛症으로 구분하
였고, 水吐는 吐黃水を 實症, 吐清水를 虛症으로 구
분하였다. 열거된 吐症을 虛實로 구분하면 朝吐·暮
吐·蟲吐 가운데 寒症·水吐 가운데 吐清水는 虛症이
고, 飢吐·飽吐·蟲吐 가운데 熱症·水吐 가운데 吐黃水
는 實症으로 분류하였다.

「陰症陽症辨」에 “吐하는 것이 소리가 있고 간
헐적으로 吐하는 것은 陽症이다. 만약 吐하나 소리
가 없고 맑은 물을 吐하거나 혹은 오늘 먹은 음식
을 내일 모조리 吐하는 자는 陰症이다.”⁴⁹⁾라 하여
陰症과 陽症으로 구분한 것은 吐하는 形態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본편에서 實症과 虛症으로 구분한
것은 吐症의 原因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嘔吐門에는 “ 여러 가지로 토하면서
올려미는(逆衝上)것은 다 火에 속한다.⁵⁰⁾ ” 原因을
火로 보고 “구토에는 냉증 과 열증 2가지 증이 있
는데 냉증 때에는 얼굴빛이 푸르고 손발이 싸늘하
며 음식을 먹은 다음 오래 있다가 토한다. 열증때에
는 얼굴빛이 벌겋고 손발이 달며(熱) 음식을 먹자마
자 곧 토한다.”⁵¹⁾하여 冷者和 熱者의 증상도 구
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症狀에 있어서 朝吐는 처음 하루 동안 먹은 음식
을 아침에 모두 吐出하는 것이니 陽氣가 虛해서 나
타나는 것이다. 暮吐는 아침에 먹은 것을 즉시 토하
는 것이며 또한 음식을 먹는 대로 토하는 것이니
陰水가 衰弱하기 때문이다. 飽吐는 먼저 風邪가 있
어서 胃中으로 들어가 있다가 飲食이 胃에 들어와
胃氣가 飲食의 勢力을 얻으면 邪氣와 싸우기 어려
우므로 토하게 된다. 飢吐는 寒邪가 腹部로 들어와
腎水を 끼고서 위로 心を 凌蔑하여 火를 밖으로 몰

49)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10. “如吐而
有聲 或痛者陽症也 倘吐而無聲 又純是清水 或今日飲食而
明日盡情吐出者乃陰症也”
50)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460. “諸嘔吐逆衝
上 皆屬於火”
51)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460. “嘔吐者冷熱
二證 冷者…久乃吐 熱者面赤手足 熱食已即吐”

아내는 위중한 증상이다. 蟲吐는 寒熱虛實의 차이가 있으나 증상은 서로 같아서 蟲의 動 때문이다. 水吐 중 清水를 토하는 것은 脾氣가 虛汗한 것이고 黃水 를 토하는 것은 胃氣가 實熱한 것인데 서로 잘 구 별해야 한다.

第 6章 瀉症

第 1節 實瀉

【原文】

瀉症多虛나 亦未嘗無實瀉也라 實瀉之症은 腹痛多 不可手按하고 完穀不化하고 傾腸而出하고 糞門之邊 이 覺火毒燒焚하고 裏急後重하야 與痢疾로正復相似 나 但無魚凍游血而已라 此는 乃火勢偕⁵²⁾水橫行하야 土隨水轉하야 翻江破海而來니 其勢難于止抑이라 投 之茶水에 立時俱下하고 投之米食即速傳出하니 仍如 故物하야 似乎膀胱不化나 而脾胃無權하고 大小腸盡 行失令이라 苟不治之得宜면 三晝夜必然歸陰이라 此 等之症이 萬中見一이던 原不必細辨이나 然이나 世 既有此病之一種하니 吾又何可置而不論이리오 世人 用脾約丸亦佳나 而終非一定不可移易之方이니 吾今 特傳一方하야 以治此症神驗之極하니 方名收脾湯이 라 先服未有止勢나 再服之면無不止者하니 神方也라

收脾湯

黃連五錢 山藥一兩 薏仁五錢 車前子五錢 茯苓五 錢 人蔘五錢 肉桂五分 水煎好用米糕紛炒熟調服之

收脾湯

黃連五錢 山藥一兩 薏仁五錢 車前子五錢 茯苓五 錢 人蔘五錢 肉桂五分 水煎好用米糕紛炒熟調服之

第 2節 虛瀉

【原文】

其虛症之瀉는 或脾瀉 或腸瀉 或腎瀉이니 三症을 大約可包而治之니 法亦不相遠이라 惟是腎經之瀉는 不特不可止水而兼且必須補水以止瀉를 人實難知라 非補水可以止瀉니 蓋水必得火而後能生하니 補水者

는 又不可不補火也라 補火者는 補命門之火也라 火 在水之中하니 徒補火則火且飛揚而⁵³⁾不能止瀉라 必 于水中補火則火得水而生하고 而水得火而止라 其中 에 實有至理하니 非漫然好辨也라 但脾瀉腸瀉를 與 腎瀉로 從何以辨其虛實哉아

第 1項 脾瀉

【原文】

脾瀉之虛는 腹喜溫而不喜冷하고 飲食能食而不能 化하고 面色痿黃하고 手足懶惰하니 此는 脾瀉之虛 症也라 方用燥脾止流湯하니 方中에 純是健脾去濕之 品하야 投脾之所好하니 土旺而水自歸元也라

燥脾止流湯

人蔘五錢 山藥一兩 芡實一兩 澤瀉二錢 吳茱萸五 分 炒乾薑五分 茯苓五錢 神麴五分 水煎服

燥脾止流湯

人蔘五錢 山藥一兩 芡實一兩 澤瀉二錢 吳茱萸五 分 炒乾薑五分 茯苓五錢 神麴五分 水煎服

第 2項 腸瀉

【原文】

腸虛之瀉는 腹中時時雷鳴하고 或作水聲하고 大便 不實하고 小便清長者가 是此等之病이라 亦要健脾助 氣爲妙而佐之實腸之品이면 則瀉可除而腸之氣又旺하 야 可以傳導水穀也라 方用補腸至聖丹이라 此方之妙 는 妙在鹿角霜下行而固脫이나 然이나 不佐之人蔘健 脾之藥이면 雖用鹿角霜이나 仍是徒然이니 止脫而終 不能生氣于絕續之時하고 挽回于狂瀾無砥柱之地也라

補腸至聖湯

人蔘三錢 茯苓五錢 薏仁一兩 芡實五錢 肉桂一錢 山藥一兩 鹿角霜末五錢 水煎湯調服

補腸至聖湯

人蔘三錢 茯苓五錢 薏仁一兩 芡實五錢 肉桂一錢

52) 底本에는 “偕”가 “借”로 되어 있다.

53) 底本에는 “飛揚而”가 “飛揚”으로 되어 있다.

山藥一兩 鹿角霜末五錢 水煎湯調服

第 3項 腎瀉

【原文】

腎虛之瀉는 必于夜半子時와 或五更前後에 痛瀉三四次 五六次不等하고 日間仍然如病人者가 此是腎瀉니 名爲大瘕瀉也라 倘徒以脾胃藥止之면 斷不能愈하니 必須用熱藥야야 以溫其命門爲妙하니 方用溫腎止瀉湯이라 此方은 雖補腎而仍兼補脾하니 補腎以生其火하고 補脾以生其土하야 火土之氣生하야 寒水之勢散이면 自然不止瀉而瀉自止也라

溫腎止瀉湯

白朮三錢 茯苓三錢 熟地八錢 附子二錢 肉桂二錢 車前子二錢 北五味三錢 山茱萸五錢 山藥一兩 薏仁五錢 巴戟天五錢 水煎服

溫腎止瀉湯

白朮三錢 茯苓三錢 熟地八錢 附子二錢 肉桂二錢 車前子二錢 北五味三錢 山茱萸五錢 山藥一兩 薏仁五錢 巴戟天五錢 水煎服

【考察】

瀉症은 實症과 虛症으로 구분하고, 虛症을 다시 脾瀉, 腸瀉, 腎瀉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原因에 따른 分類이다. 實瀉는 火勢가 極甚한 것이 原因으로 收脾湯을 사용하고, 脾瀉는 脾虛가 原因으로서 健脾去濕의 治法으로 燥脾止瀉湯을 사용하고, 腸瀉는 健脾助氣의 治法으로 補腸至聖湯을 사용하며, 腎瀉는 一名 大瘕瀉라고도 하는데 命門火를 溫補하는 治法으로 溫腎止瀉湯을 사용하였다.

「陰症陽症辨」에는 瀉症을 陰症과 陽症으로 구분하였는데 陰症은 寒症으로서 扶火消水湯을⁵⁴⁾ 사용하고, 陽症은 熱症으로서 導水止瀉湯을⁵⁵⁾ 사용한다.

54)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15. “陰症之瀉則不同…另傳方者 名爲扶火消水湯”

55)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15. “陽症用車前…方名導水止瀉湯”

『東醫寶鑑』大便門 에서는 설사의 양상을 장부별로 脾泄은 복창만 하며 설사하며 먹으면 바로 토하고, 胃泄은 음식이 소화 안되며 얼굴색이 노랗고, 大腸泄은 먹으면 바로 대변이 나오고 대변색이 백색이고 장에서 소리가 나며 끊어지듯 아프고, 小腸泄은 변이 반죽한것 같고 고름변이며 소복이아프고 大瘕泄은 이급후중하고 변이 나오지 않으며 자주 화장실에 가고 음경이 아픈것.⁵⁶⁾ 이라하여 臟腑별로 구분하였고, 濕泄 風泄 寒泄 暑泄 火泄 虛泄 滑泄 殭泄 痰泄 食積泄 酒泄 脾泄 腎泄 暴泄 久泄 15종류로 다시 원인별로 구분하였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腹痛이 대개는 손을 대지 못하게 아프며 먹은 음식물이 消化되지 않은 채 나오고 腸을 기울인 듯 쏟아져 나오고 肛門 주위가 火毒으로 타는 듯 하고 裏急後重하여서 痢疾과 매우 비슷하나 粘液膿血樣의 大便은 없고, 脾瀉는 腹部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차갑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飲食을 먹을 수는 있으나 消化를 시킬 수 없고 面色이 痿黃하고 手足을 놀리기 싫어하고, 腸瀉는 배속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혹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며 大便은 堅實하지 않고 小便은 맑고 量이 많고, 腎瀉는 반드시 夜半子時 또는 五更前後에 腹痛과 泄瀉를 서너 번 또는 대여섯 번 일정하지 않게 하고 낮에는 정상과 같은 특징이 있다. 陰症은 心腹이 아프지 않고 大腸에 後重感이 없고 痛症이 없으며⁵⁷⁾, 陽症은 腹痛이 심하여 손을 댈 수 없고 後重感이 있다.⁵⁸⁾

第 7章 頭痛

第 1節 實頭痛

【原文】

頭痛有虛有實하니 實痛은 易除而 虛痛은 難愈라 實痛은 如刀劈箭傷而不可忍하고 或走來走去하고 穿腦

56) 泄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82. “泄證有五 脾泄者腹脹滿泄注食則吐逆 …小腸泄澀澀而便膿血小腹痛”

57)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14. “寒症水瀉 心腹不痛 大腸不後重作楚”

58)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p.14-15. “若熱症之瀉也不然也 必腹痛不可按 有後重之苦”

連目하고 連鬢連齒而痛하고 風痰壅塞于兩鼻之間하고 面目黎黑하고 胞膈⁵⁹⁾飽脹하야 叫喊號呼는 皆實症也라 倘以爲虛而用補陽之藥하면 轉加苦楚하니 必以散邪去火爲先而病始可去라 方名升散湯이니 此方은 全是發散之藥이니 必須與前症相同者라야 方可用이라 二劑而病去如失하니 否則未可輕投也라

升散湯

蔓荊子二錢 白芷一兩⁶⁰⁾ 細辛一錢 藁本五分 半夏三錢 甘草一錢 水煎服

升散湯

蔓荊子二錢 白芷一兩⁶¹⁾ 細辛一錢 藁本五分 半夏三錢 甘草一錢 水煎服

第 2節 虛頭痛

【原文】

至于虛症頭痛하야는 有陽虛陰虛之分이라 陽虛者는 脾胃之氣虛요 陰虛者는 肝腎之氣虛也라

第 1項 氣虛

【原文】

脾胃之氣虛者는 或瀉後得病커나 或吐後成災하야 因風變火하야 留戀腦心하야 以致經年累月而不效라 方用補中益氣湯加蔓荊子一錢 半夏三錢이라 一劑而痛如失이라

第 2項 陰虛

【原文】

陰虛者는 腎肝之氣不能上升于頭目하야 而顛頂之氣昏暈하고 而頭岑岑欲臥하고 或痛 或不痛하고 兩太陽恍若有崇憑之라 此症을 若作陽虛治之면 不特無效而且更甚하고 往往有雙目俱壞而兩耳俱聾者하니 可慨也라 方用肝腎同資湯하니 一劑而暈少止하고 再劑而暈更輕하고 四劑全愈라 此方은 妙在肝腎同治하

니 少加入顛之藥하면 陰水既足에 肝氣自平하고 肝氣既平하면 火邪自降이라 設不如此治法하고 徒自于頭痛救頭하면 風邪未必散而正氣消亡하야 必成廢人而不可救矣라

肝腎同資湯

熟地一兩 白芷二錢 當歸一兩 川芎一兩 細辛五分 郁李仁五分 白芥子五錢 水煎服 半鍾加入酒一碗其飲

肝腎同資湯

熟地一兩 白芷二錢 當歸一兩 川芎一兩 細辛五分 郁李仁五分 白芥子五錢 水煎服 半鍾加入酒一碗其飲

【考察】

頭痛을 實症과 虛症으로 구분하였는데, 實症의 原因이 원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散邪去火의 治法으로 升散湯을 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外邪와 火가 原因으로 여겨진다. 虛症은 陽虛와 陰虛로 구분하였는데 陽虛는 脾胃之氣의 虛로서 補中益氣湯에 蔓荊子一錢 半夏三錢을 加味한 처방을 사용하고, 陰虛는 肝腎之氣의 虛로서 肝腎同資湯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實症과 虛症은 外感病과 內傷病에 따른 구분이며, 虛症은 다시 藏府에 따른 구분으로 思料된다.

「陰症陽症辨」에는 世人들이 頭痛을 陽症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여 陰症과 陽症으로 구분하였는데, 陰症의 頭痛은 腎水가 衰弱하고 肝氣가 脾土를 克하여 虛火가 上升하게 되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四物湯의 變方인 平顛化暈湯⁶²⁾ 사용하였고, 陽症은 陽虛의 頭痛의 頭痛으로서 風邪가 침범하였을 때 陽氣가 虛하여 邪氣가 안으로 들어와서 발생되는 것으로 解痛神丹⁶³⁾ 사용하였다.

『東醫寶鑑』頭門에는 “三陽有頭痛 三陰無頭痛” “頭痛多主於痰 痛甚者火多也”라 하여 三陰에는 頭

59) 中醫藥本에는 “胞膈”으로 되어 있으나 底本이 옳다.
60) 中醫藥本에는 “白芍二錢”으로 되어 있다.
61) 中醫藥本에는 “白芍二錢”으로 되어 있다.

62)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46. “陰症之痛也…此乃腎水之衰而肝氣剋脾 虛火上升之故也 方用平顛化暈湯”
63)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47. “若陽虛之頭疼 多是風邪侵襲而然陽氣不虛 邪何從入于…吾有一方最佳 方名解痛神丹”

痛이 없고 痰과 火가 原因이라⁶⁴⁾고 하였고 頭痛의 種類도 正頭痛 篇頭痛 風寒頭痛 濕熱頭痛 厥逆頭痛 痰厥頭痛 氣厥頭痛 熱厥頭痛 濕厥頭痛 眞頭痛 의 10種類로 나누었고, 다시 太陽頭痛 少陽頭痛 陽明頭痛 太陰頭痛 少陰頭痛 厥陰頭痛 六經으로도 頭痛을 나누었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마치 칼로 쪼개듯이 혹은 화살에 다친 듯이 아파서 참을 수 없고 혹은 痛症이 여기저기로 옮겨다녀서 腦를 지나 눈과 뺨과 齒牙까지 아프고 風痰이 양쪽의 鼻孔 사이에 막히고 얼굴과 눈이 검고 胃脘部와 아랫배가 불려서 소리를 지르는 樣相이고, 陽虛로 인한 頭痛은 泄瀉 후에 病을 얻었거나 혹은 嘔吐한 뒤에 發病하여 風이 火로 變하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몇 년 몇 달이 지나도 效果가 없으며, 陰虛로 인한 頭痛은 머리가 아파서 누우려하고 頭痛이 있거나 없기도 하며 양쪽의 太陽穴 부위가 마치 귀신들린 듯 한 특징이 있다. 陰症은 巔頂부위가 마치 어지러운 듯 하고, 머리가 무겁고 아픈 듯 안 아픈 듯 하며 혼미하여 잠들려고 하고 머리가 무거워 들지를 못하여 陽症頭痛의 경우처럼 심하지는 않으며, 아침에는 조금 나았다가 저녁에는 심해지고 몸이 절대 무거운 것을 느끼지는 않으며⁶⁵⁾, 陽症은 코가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나고 입이 마르고 痰이 많으며 痛症이 왔다갔다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지 않고 痛症이 齒牙까지 이어지고 혹은 痛症이 등까지 이어지며 밤새도록 꿈꾸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⁶⁶⁾ 특징이 있다.

第 8章 臂痛

第 1節 臂痛實症

【原文】

臂痛雖小症而虛實宜分이라 蓋此等之症은 最難辨也라 實症若何오 其痛長長在於一處하고 皮毛之外但

64)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03.

65)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46. “陰症之痛也 巔頂若暈而頭重似痛不痛 昏昏欲睡 頭重而不可擻非若陽症之痛之甚也 其症朝輕而晚重 身軀又不覺十分之重”

66)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47. “其症必鼻塞而多涕 口渴而多痰 其痛必走來走去不定於一方而痛連齒牙 或痛連于項背 徹夜號呼 竟夜不寐者是也”

覺苦楚하고 按之痛更甚하고 口渴便閉하니 此實邪也라 用搜風 散火 祛痰之味하면 自然有效요 苟若不然이면 更添疼痛이라 吾以外祛湯治之하니 一劑而痛輕하고 兩劑而痛減하고 三劑而痛愈니 使邪從外入하고 仍從外出也라

外祛湯

白朮五錢 防風三錢 炒梔子三錢 荊芥三錢 半夏三錢 烏藥三錢 甘草一錢 白芍三錢 水煎服

外祛湯

白朮五錢 防風三錢 炒梔子三錢 荊芥三錢 半夏三錢 烏藥三錢 甘草一錢 白芍三錢 水煎服

第 2節 臂痛虛症

【原文】

虛症若何오 其痛不定하여 或走來而走去하며 或在左而移右하고 搥之而痛減하고 摩之而痛安하며 或作塊而現形하고 或生癍而見色하며 口必不渴하고 而痰結更深하고 腸必乾枯하고 而溺偏清白하니 此眞氣之虛而痰氣壅滯固結而然也라 若用祛風之劑而身原無風커나 或用祛火之藥而體非實火면 卽用消痰之劑而正氣既虛하고 痰亦難去하니 必須用健脾補腎之藥而後佐之去風 去火 去痰之品이면 自然手到病除也라 方用衛臂散이라 此方은 全不去治臂痛而單去滋肝益腎이니 水木有養하면 自不去克脾하여 脾氣健旺하여 自能運動四肢하니 何致有兩臂之痛哉리오

衛脾散

黃芪一兩 當歸五錢 防風一錢 白芥子三錢 白芍五錢 茯苓五錢 熟地五錢 枸杞子三錢 薏仁三錢 水煎服

衛脾散

黃芪一兩 當歸五錢 防風一錢 白芥子三錢 白芍五錢 茯苓五錢 熟地五錢 枸杞子三錢 薏仁三錢 水煎服

【考察】

實症은 實邪가 原因이며, 症狀은 痛症이 增減이 없고 痛症部位가 一定하며 누르면 痛症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祛風散火祛痰의 治法으로 外祛湯을 사용한다. 虛症은 眞氣의 不足이 原因이며, 症狀은 痛處가 一定하지 않고 문지르거나 만져주면 痛증이 감소되는 특징이 있고, 健脾補腎을 爲主로 하고 祛風祛火祛痰의 治法을 補佐하여 衛臂散을 사용하였다.

『東醫寶鑑』手門 肩臂病因篇에서는 “팔을 굽혔다가 펴지 못하는 것은 힘줄에 병이 생긴 것이고 펴다가 굽히지 못하는 것은 뼈에 병이 생긴 것이다. 병이 뼈에 있으면 뼈를 보하고 힘줄에 병이 있으면 힘줄을 보해야 한다.”⁶⁷⁾ 하였으며 “비통은 原因은 담음이 많다”⁶⁸⁾ 하였다. 하여 筋과 骨에 問題라고 하였고 대개 痰飲을 臂痛의 原因으로 보았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痛症이 계속해서 한 곳에 있고 皮毛의 바깥에만 高痛과 皮로움을 느끼고 누르면 痛症이 더 심하고 口渴과 大便을 보지 못한다., 虛症은 氣가 배꼽으로부터 치밀어 올라서 문득 喘息을 하여 편안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陽症은 그 痛處가 일정하지 않아서 痛症이 왔다가도 없어지며 혹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두드리면 痛증이 減少하고 가볍게 문지르면 痛症이 缓解되며 혹은 덩어리가 저서 形體가 나타나기도 하고 자국이 생겨서 색이 보이기도 하며 口唇을 만드시 마르지 않고 痰結이 더욱 깊어지고 腸이 만드시 乾枯하며 小便은 靑白하니 이는 眞氣는 虛하고 痰氣가 단단하게 멩쳐서 壅滯되기 때문이다.

第 9章 足痛

【原文】

兩足之痛도 亦有 虛實하니 其症이 與兩臂相同而少 有異者라 盖足居下流하여 多感水濕之氣하니 實症之生은 必爲水腫하고 按之皮肉如泥者가 是也라 虛症之生은 雖感水氣나 而不致腫脹之如泥하고 骨中作酸하고 時痛時止하고 久之膝大而腿脹者가 是也라

67)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98. “手屈而不伸者其病在筋 伸而不屈者其病在骨在 骨守骨 在筋守筋”
68)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99. “痰飲多爲臂痛”

第 1節 足痛實症

【原文】

實證은 宜瀉其水니 用牽牛 甘遂各二錢을 煎湯服之면 即時獲效하니 正不必俟其大腫而後治之也라

第 2節 足痛虛症

【原文】

虛症은 不可瀉水요 宜補其氣而兼利濕하고 溫其火而帶治其風之爲得也라 方用顧足散하니 此方之妙는 妙在用氣分之藥하여 以壯其氣하고 氣壯而後利水하면 則水自出而邪自難留也라

顧足散

黃芪一兩 薏仁一兩 芡實五錢 白朮一兩 車前子五錢 肉桂五分 防風五分 茯苓五錢 白芥子五錢 水煎服

顧足散

黃芪一兩 薏仁一兩 芡實五錢 白朮一兩 車前子五錢 肉桂五分 防風五分 茯苓五錢 白芥子五錢 水煎服

【考察】

足痛의 原因은 虛症이나 實症이 모두 水濕인 것에는 같으나, 다만 實症은 만드시 浮腫의 증상이 있는 반면에 虛症은 浮腫이 없는 차이가 있으며, 治法에 있어서도 實症은 瀉水를 하여야 하나 虛症은 氣分之藥을 써야하는 차이가 있다.

『東醫寶鑑』脚機門에는 “각기병은 실지 수습(水濕)으로 생긴다. 습이 상할때는 먼저 아랫도리가 상한다. 발은 아래에 있으므로 습기를 많이 받게 된다. 발에 습이 몰리면 열이 생긴다. 그러면 습과 열이 부딪치게 되어 각기병이 생긴다..”⁶⁹⁾ 하여 水濕熱이 足痛의 原因으로 보았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만드시 浮腫이 있고 皮肉을 누르면 진흙과 같은 무른 것이 있다. 虛症은 痛症이 있다4가 때로는 痛症이 그치고 오래되면 膝部가 腫大하고 大腿部가 腫脹된다.

69)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301. “脚氣之疾實水濕之所爲也. 內經曰 傷於濕者下先受之 盖足居于下而多受其濕 濕鬱生熱 濕熱相搏其病…”

第 10章 齒痛

【原文】

齒痛은 人之最小之疾也나 然이나 不得其陰陽之道하면 最不能愈而最苦也라 齒之部位不同하니 有藏府之各屬⁷⁰⁾이라 然而各分藏府之名目에 反致炫惑하면 不若單言陰陽易于認識이라 雖然이나 陰陽終于何而辨之오 仍亦辨之藏府而已矣라

第 1節 陽齒痛

【原文】

大約陽症之痛은 多屬于陽明胃經之火하니 此火는 多是實火니 發作之時에 牙床必腫하고 口角流涎하고 喉嚨作痛하고 欲食甚難하고 不食作痛하고 汗出而口渴하고 舌燥하고 而便閉하니 倘以補陽補氣之藥과 祛風殺蟲之方治之면 多有不效요 卽或少有效驗이나 亦隨止而隨痛이 牽連作楚者가 比比也라 法當用竹葉石膏湯하니 一劑而痛輕하고 二劑而全愈요 不必三劑也라

第 2節 虛齒痛

【原文】

至于虛症之痛하야는 多是腎經之病이니 腎水熬乾하야 腎火上越하면 齒乃骨之餘니 骨髓無腎水以相資하야 使致齒中作痛이라 倘亦以祛風散火殺蟲之品으로 急救之면 不特無濟于事而痛且更甚從前하며 或一齒之痛後에 必上下之齒全痛矣라 法當用六味地黃湯加麥冬 五味 骨碎補하야 治之면 一劑而痛失하니 眞奇異之法也라 二方이 治虛實之齒痛에 實爲至妙로대 惟是蟲牙作祟는 不可拘于虛實之分하고 以五靈脂爲細末하야 先以淨水漱口後에 以醋調靈脂含漱多時면 立時蟲死而痛除하니 又不可不知也라

【考察】

본편은 「虛症實症辨」임에도 齒痛을 陽症과 虛症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陽症의 原因이 陽明胃經

의 火이며, 이 火는 實火이므로 陽症이라 한 것이니 陽症은 곧 實症이다. 虛症은 腎經의 病으로서 腎水가 不足하여 發生된 火로 말미암아 齒痛이 된 것이다. 이는 齒牙를 ‘陽明經에 속한다’는 것과 ‘骨之餘’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齒痛을 辨證한 것이다.

『東醫寶鑑』牙齒門에서는 “치통은 위(胃)속에 있던 습열(濕熱)이 잇몸 사이에 올라 갔을 때 풍한에 감촉되거나 찬것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습열이 물리고 맏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⁷¹⁾이라 하였다. 齒痛의 종류는 風熱痛 風冷痛 熱痛 寒痛 毒痰痛 瘀血痛 蟲蝕痛 7種類로 기록하였다.

症狀에 있어서 陽症은 陽明胃經의 火에 속하니 이 火는 대개는 實火이니 發作할 때에 잇몸이 반드시 붓고 口角流涎하고 喉嚨이 아프고 음식을 먹기가 매우 어렵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아프며 汗出하면서 口渴하고 舌燥하고 大便을 보지 못한다. 虛症은 腎經의 病이니 腎水가 말라서 腎火가 위로 끓어 오르면 骨髓가 腎水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齒中이 아프게 된다.

第 11章 心痛

【原文】

心痛之宜辨虛實也라 古人이 云痛無補法이라하니 是痛은 不可以虛實言也라 然이나 虛可補而實可瀉요 心痛言虛實卽宜言補瀉矣로대 人恐不相信하야 不知心痛有可補之道하니 人未之知也라

第 1節 實火心痛

【原文】

如心痛之時에 晝夜呼號하고 飲食難進하면 此實火也니 斷斷不可用補니 一補而痛必更甚하고 必有死亡之禍라 然而能于補中瀉火하면 亦未嘗不可却病이니 蓋補正氣少而去火之藥多면 又何患乎補也아 方用先攻散治之니 一劑卽止痛의 神方也라 論건대 此方에 有白芍之酸收하야 似乎不宜治火痛之心病이나 誰知 梔子 枳殼 貫仲이 各皆祛火散邪之藥而無芍藥以調和

70) 上四門牙의 疼痛은 心에, 下四門牙는 腎에, 上二側牙는 胃에, 下二側牙는 脾에, 上左盡牙는 膽에, 下左盡牙는 肝에, 上右盡牙는 大腸에, 下右盡牙는 肺에 속한다.

71)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47. “牙齒之痛因胃中濕熱上出於牙齦之間適被風寒 或飲冷所鬱則濕熱不得外達故作痛也”

之면 則過於殺伐하여 未必不使窮寇之死鬪로대 妙在 用芍藥以解紛하면 則剿撫兼施니 實有人謀不測之機 也라

先攻散

芍藥五錢 梔子五錢 枳殼五錢 管仲五錢 水煎服

先攻散

芍藥五錢 梔子五錢 枳殼五錢 管仲五錢 水煎服

第 2節 去來心痛

【原文】

至于可補之心痛하야는 亦因其虛而可補 故로 補之 也라 其痛이 必時重而時輕하고 喜手按而不喜不按하 고 與之飲食而可吞하니 此痛名爲去來痛也라 去來痛 은 原是虛症이니 豈可執痛無補法而不用純補之藥哉 아 吾今立一方하니 名爲消痛補虛飲이니 一劑而痛如 失하고 二劑全愈不再發하니 亦神方也라 盖去來之痛 은 全在心氣之虛하고 少有微寒留于膈中之下하니 寒 遠則不痛하고 寒近則少痛也라 此等之痛⁷²⁾이 往往有 經歲經年而不愈者는 亦因人不敢用補하니 邪無所畏 하야 留住于皇畿內地라가 時時偷竊作祟耳라 今吾用 大劑補藥하야 以補其膈中하니 譬如相臣得命하야 英 察精明하야 必然擒賊하니 小偷細盜焉敢潛住皇居左 右哉아 此方之所以神耳라

消痛補虛飲

人蔘五錢 白朮五錢 茯神五錢 枳殼一錢 廣木香一 錢 白芍一兩 當歸五錢 甘草一錢 附子一片重二分 白 芥子三錢 水煎服

消痛補虛飲

人蔘五錢 白朮五錢 茯神五錢 枳殼一錢 廣木香一 錢 白芍一兩 當歸五錢 甘草一錢 附子一片重二分 白 芥子三錢 水煎服

【考察】

72) 底本에는 “痛”이 “病”으로 되어 있다.

心痛은 「陰症陽症辨」에도 나오는데 心痛은 火 또는 寒에 의하여 발생하기는 하지만 膈中の 障隔 이 있어서 心이 직접 邪氣를 받지 않으므로 眞心痛 은 아니라고⁷³⁾ 하였다. 「陰症陽症辨」에는 陰陽의 區分이 있으니 陽症은 邪火가 胃中으로 침범하여 膈中까지 치밀어 오른 것이고, 陰症은 陰寒의 氣가 心에 侵犯한 것으로⁷⁴⁾ 邪氣의 性質에 따라 分類하 였고, 본 편은 邪氣의 性質에 있어서 「陰症陽症 辨」과 같으나 다만 治法에 있어 實症은 實火이기 때문에 補法을 쓸 수 없으나, 虛症은 虛寒이기 때 문에 補法을 써야 하는 차이가 있다.

『東醫寶鑑』胸門에는 “心痛與胃脘痛病因不同” 라 하여 심통과 위완통은 다르다고 하였고 하였고 “가슴이 아프면 만드시 위가 아프것은 비(脾)와 심 (心)이 서로 연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 에서는 “이것을 가슴이 아프다” 고만 하였다. 대개 가슴은 약간 아프면서 비위(脾胃)는 몹시 아프다. 가슴이 아프것은 사색을 지나치게 한데서 생긴 것 이고 비위가 아프것은 음식에 상했거나 담음(痰飲) 이 있기 때문이다.” 라⁷⁵⁾ 하여 心痛의 대부분은 胃 痛이 거의 많고, 心痛은 傷思慮 胃脘痛은 飲食傷을 原因이라 하였고 臨床上 飲食傷이 原因이되어 心痛 에까지 影響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心痛 의 종류는 蟲心痛 疝心痛 風心痛 悸心痛 食心痛 飲 心痛 冷心痛 熱心痛 去來痛 九種心痛⁷⁶⁾으로 나누어 症狀을 같이 記錄하고 있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心痛이 있을 때에 주야로 소리를 지르고 飲食 먹기를 어려워 한다. 虛症은 痛 症이 때로는 危重하다가도 때로는 輕減되고 손으로 누르는 것을 좋아하고 飲食을 주면 먹을수 있다.

第 12章 脇痛

73)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p.35-36. “心 痛從來言無眞正之病 不知心痛未嘗無眞也…謂其眞正心痛 其實非眞正心痛也”

74)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p.37-38. “此 乃邪火作祟于胃中上衝膈中耳…此陰寒之氣犯心”

75)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62. “胃脘當心而 痛脾藏連心…脾胃痛因傷飲食或痰飲故也”

76)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62. “蟲心痛 胃脘 痛痛定便能食時作…心痛或作或止久而不愈也”

第 1節 脇痛實症

【原文】

脇痛之虛實을 以何以辨之오 脇痛屬之肝하고 肝經本是至陰之位하야 宜乎痛皆陰症也나 不知肝雖屬陰而氣則屬陽이니 或一時感冒風邪하야 兩脇作痛하고 痰壅上焦로대 中脘⁷⁷⁾不痛하고 結成老痰하야 欲吐不能하며 欲下不得하니 亦最苦之症也라 法當用舒肝散 風之藥하니 逍遙散이 最妙之方也라

第 2節 脇痛虛症

【原文】

至于肝氣之虛하야는 一旦觸動怒氣하야 傷其肝血하면 亦兩脇作痛하야 其症이亦與前症相似로대 但無欲吐不能과 欲咽不下之狀하고 論理亦可用逍遙散以舒解之나 然而나本方藥味雖佳而分兩欠重하야 吾今更立一方하니 名爲平肝舒怒飲이요 治因怒脇痛甚效하고 或因鬱而作痛者도 亦無不神하니 一劑而痛如失이라 此方之妙는 妙在芍藥用至一兩之多則肝木得酸而自平이온 況又佐之當歸之補血以生肝하고 又佐之各品相輔之宜則肝氣之鬱解하니 而兩脇又何能作痛哉리오 倘不知用此하고 一旦用小柴胡等湯하면 雖亦能去痰이나 而曠日遲久하니 不能如此方之神速耳라

平肝舒怒飲

柴胡二錢 白芍一兩 炒梔子三錢 當歸一兩 車前子三錢 白朮三錢 枳殼一錢 丹皮三錢 神麴一錢 麥芽二錢 山楂十粒 水煎服

平肝舒怒飲

柴胡二錢 白芍一兩 炒梔子三錢 當歸一兩 車前子三錢 白朮三錢 枳殼一錢 丹皮三錢 神麴一錢 麥芽二錢 山楂十粒 水煎服

【考察】

脇痛을 虛症과 實症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實症은 ‘感冒風邪’가 原因이며, 虛症은 ‘觸動怒氣’가 原因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原因에 따라서 虛症과 實症으로 구분한 것으로 思料된다.

77) 底本에는 “中脘”으로 되어 있으나 “中腕”으로 고쳤다.

『東醫寶鑑』脇痛門에는 “왼쪽 옆구리가 아플 때에는 지궁산이나 소시호탕에 천궁 꺾피 용담초등을 넣어 쓴다.오른쪽 옆구리가 아플 때에는 추기산이나 지각산을 생강과 청피 총백을 달인물에 타 먹는다. 혹은 신보원을 쓴다.” 라 78)하여 左右에 따라 治療를 달리하였고, 脇痛의 種類를 氣鬱脇痛 死血脇痛 痰飲脇痛 食積脇痛 風寒脇痛 乾脇痛 6種으로 기록하고 있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양쪽 옆구리가 아프고 痰이 上焦에 壅滯되었으되 中腕部가 아프지 않고 宿痰이 結成되어 토해내고자 하나 토해내지 못하며 삼키려하나 삼키지도 못하는 것이다. 虛症은 怒氣가 觸發되어 肝血이 損傷되면 양쪽 옆구리가 아파서 그 證狀이 앞에서 말한 實證의 脇痛과 비슷하나 다만 痰을 토해내려고 하나 토해내지 못하는 것과 삼키고자 하나 삼키지 못하는 證狀이 있다.

第 13章 腹痛

【原文】

腹痛之虛實을 又何以辨之오 腹居至陰之下하니 以痛之皆陰症也라 既是陰症이면 宜虛而非實矣나 誰知痛之不同하야 有虛有實之異乎아

第 1節 實腹痛

【原文】

實痛은 何以辨之오 按之必手不可近은 此乃燥屎結成于大腸之內하야 火迫于藏府之間이니 傷寒日久에 最多此病이오 此乃實邪而非虛病之可比요 方當下之爲妙니 仲景張公은 有大柴胡 承氣⁷⁹⁾亦可選用이나 然而非專治腹痛也라 吾今另立一方하야 專治腹痛之症하니 實有神效요 名爲滌邪救痛湯이라 此方은 雖有大黃之下邪나 而卽有當歸生地之生血以活血하야 總然有枳實之推蕩而無妨하니 亦攻補并施之妙法也라 倘腹痛而身有寒邪未散하면 本方中에 加柴胡一錢足矣요 餘可不必增入이니 一劑而邪散穢出하야 身卽涼而

78)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82. “左脇痛宜枳芎散或小柴胡湯加…右脇痛宜抽氣散或枳殼散以生薑…下或用神保元”

79) 底本에는 “承氣”가 “乘氣”로 되어 있으나 고쳤다.

痛如失이라

滌邪救痛湯

大黃五錢 紅花一錢 生地五錢 當歸五錢 枳實一錢 厚朴一錢 天花粉一錢 甘草一錢 水煎服

滌邪救痛湯

大黃五錢 紅花一錢 生地五錢 當歸五錢 枳實一錢 厚朴一錢 天花粉一錢 甘草一錢 水煎服

第 2節 虛腹痛

【原文】

至於腹痛虛症하야는 大約畏寒하고 畏食하고 喜熱手之相慰하고 喜健人之按摩하니 盖虛寒之氣留于下焦之故也요 其大便必瀉하고 而小便必然清冷을 一問에 可知요 無多深辨이라 方用祛寒止痛湯하니 此方은 妙在用白朮爲君하야 以利其腰臍之氣면 氣濕而寒溫之氣不能留于腹中하야 自然邪從小便而出하야 而疼痛之苦頓除也라 倘以輕清之味和解之면 未必奏功如神至此라

祛寒止痛湯

白朮一兩 肉桂二錢 甘草一錢 吳茱萸五分 砂仁三粒 藿香一錢 人蔘二錢 半夏一錢 水煎服

祛寒止痛湯

白朮一兩 肉桂二錢 甘草一錢 吳茱萸五分 砂仁三粒 藿香一錢 人蔘二錢 半夏一錢 水煎服

【考察】

實症은 燥屎가 大腸 안에 있어서 火가 발생한 것이고, 虛症은 虛寒之氣가 下焦에 있어서 생긴 것으로 분류하였고, 「陰症陽症辨」에 陽症은 火로 인한 것이고⁸⁰⁾, 陰症은 寒藥을 쓰지 못한다고⁸¹⁾ 하였으며 또한 腹痛은 대부분 寒症과 熱症 두 가지라고⁸²⁾

한 것으로 보아 實症과 陽症은 熱症의 범주에, 虛症과 陰症은 寒症에 속하는 것으로 分類하였다.

『東醫寶鑑』腹門에는 부위에 따라 “大腹屬太陰 多食積外邪” “臍腹屬少陰 多積熱痰火” “少腹屬厥陰 多瘀血及痰與尿澀” 3종류로 구분하여 증상과 원인이 다르다고 기록⁸³⁾하였고 다시 병인에 따라 寒腹痛 熱腹痛 死血腹痛 食積腹痛 痰飲腹痛 蟲腹痛 6종으로 구분하였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눌렀을 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燥屎가 大腸의 안에서 結成되어 火가 臟腑의 사이를 逼迫하여 傷寒이 時日이 오래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虛症은 대략 추위를 싫어하고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뜨거운 손으로 문지르는 것을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이 按摩해 주는 것을 좋아하니 虛寒 邪氣가 下焦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第 14章 吐血

【原文】

吐血은 最難治之症이니 虛實更不可不知라 吐血實症은 百中二三이니 非感暑而得 卽大怒而成也요 其餘鬱症은不可言實病矣라

第 1節 暑症吐血

【原文】

暑症之成은 自家必然知道니 必有熱氣從口中而入하야 一時不能外却而吞入胸中하야 便覺氣逆痰滯하고 少頃傾盆吐血이요 雖血既傾盆而出하야 亦成虛症이나 然이나 終不可因其已失之血而謂是虛症以治之也라 法當解其暑熱而佐之引血歸經之品하면 火散而血歸經絡하야 雖身子微弱而血終不再吐也라 方用解暑至神湯하니 一劑而血症頓愈요 不必再劑也라

解暑至神湯

青蒿一兩 生地一兩 人蔘五錢 荊芥末炒黑三錢 麥冬五錢 玄蔘一兩 白芥子三錢 水煎服

80)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p.42-42. “若陽症之痛…小便必黃赤而便難 皆火之作祟”

81)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p.41-42. “其陰症之痛…此等之症不可用寒藥治之”

82)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41. “腹痛多是寒熱之二症”

83)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74.

解暑至神湯

靑蒿一兩 生地一兩 人蔘五錢 荊芥末炒黑三錢 麥冬五錢 玄蔘一兩 白芥子三錢 水煎服

第 2 節 大怒吐血

【原文】

大怒吐血은 以致肝氣大傷하야 不能藏血하야 亦傾盆而出이나 但其色多紫하야 不若傷暑之純紅也라 若見其吐血之多하야 便爲虛症而用黃芪補血之湯이 未爲不可나 然이나 終非治肝平怒之法이라 肝氣不平이면 吐血又何日止也아 方用平肝止血湯하니 一劑而病如失하고 再劑不再吐血矣라 此方妙在白芍用至三兩하야 始能平其大怒之氣하니 肝⁸⁴中之血盡情吐出에 非芍藥之多면 何能潤이리오 又慮芍藥尙不足以平肝하야 又益之以丹皮之涼血하고 而佐之以柴胡之舒肝하고 又恐漏卮之路熟하야 加三七以杜其隙하니 相制得宜하야 所以奏功如神也라 此方服後에 必須六味地黃湯에 加麥冬生地當歸白芍各三兩爲丸하야 每日吞服一兩이면 一月如平時也라 此又善後之計니 又不可不知라

平肝止血湯

白芍三兩 丹皮一兩 炒梔子三錢 白芥子三錢 柴胡五分 三七根末三錢 水煎調三七根末服

平肝止血湯

白芍三兩 丹皮一兩 炒梔子三錢 白芥子三錢 柴胡五分 三七根末三錢 水煎調三七根末服

第 3 節 虛症吐血

【原文】

至于虛症吐血하야는 或因房勞하고 或因行役하고 或因氣鬱로 皆能失血이라 我有一方하야 可以通治하니 名爲救生丹이요 一連數服이면 未有血症之不愈者라 愈後에 將此方少減一半하야 終日煎湯作飲하야 能服至三月者는 斷無再行吐血之理하니 何至有少年夭亡者哉아

84) 底本에는 “肝中”이 “況肝中”으로 되어 있다.

救生丹

熟地一兩 生地一兩 麥冬一兩 人蔘三錢 荊芥三錢 三七根末炒黑三錢 水煎服

救生丹

熟地一兩 生地一兩 麥冬一兩 人蔘三錢 荊芥三錢 三七根末炒黑三錢 水煎服

【考察】

吐血의 辨證을 본편에서는 發病原因에 따라 분류하여 傷暑와 大怒로 인한 것은 實症, 房勞勞役氣鬱로 인한 것은 虛症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비하여 『陰症陽症辨』에는 吐血은 火가 없으면 吐血할 수 없고 水가 없어도 吐血할 수 없다고⁸⁵⁾ 하여 火로 인한 陽症과 水氣가 없어서 虛火가 발생하여 생기는 陰症으로 吐血을 구분하여 病理機轉에 따라서 分類한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血門 嘔血吐血篇에는 吐血3種으로 “內衄(내육)이라는 것은 피가 코피처럼 나오는것인데 콧구멍에서 나오는것은 아니고 이것은 심 과 폐 사이에서 위(胃)속에 흘러들어갔던 피인데...”⁸⁶⁾ “폐저(肺疽)라는 것은 술을 마신뒤에 술독으로 생긴 열이 가슴에 그득차서 답답하기 때문에 토했는데 다 토한 다음 피가 나오는것”⁸⁷⁾을 말한다. “상위(傷胃)라는것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거나 위가 차기(冷) 때문에 소화되지 않아 안따갑게 답답하여 억지로 토할 때 먹은음식이 기(氣)와 같이 갑자기 올라오는 관계로 위구(胃口)찢어져서 피까지 토하게 되는것”⁸⁸⁾을 말한다.

症狀에 있어서 暑症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으니 반드시 熱氣가 입을 통하여 들어와 단번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胸中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氣逆하고 痰滯함을 느끼고 조금 뒤에 항아

85)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85. “蓋吐血無火不能吐血而無水亦不能吐血也”

86)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08. “內衄者出血如鼻衄但不從鼻孔出是近從心肺間流入胃中...”

87)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08. “肺疽者或飲酒之後毒熱滿悶...”

88)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08. “傷胃者因飲食大飽之後...”

리를 쏟듯이吐血하는 것이다.大怒로 인한 경우에는 肝氣가 크게 損傷되어 血을 간직할 수 없어서 이 역시 항아리를 쏟듯이 血이 나오나 다만 그 血色이 대개는 紫色이어서 傷暑의 경우처럼 純紅色이지는 않다. 虛症의 경우에는 房勞 혹은 行役으로 혹은 氣鬱로 인하여吐血하는 것이다.

第 15章 發狂

【原文】

發狂之有虛實也로대 發狂多是熱邪之作祟라 然이나 亦間有虛火之發狂하니 又不可不知也라 發狂之實症은 與治實狂之方法이요 前文已載하니 茲不再論이라

【注釋】

- (1) 載: 乘也, 실을 재
- (2) 茲: 此也, 이 자

第 1節 陰虛發狂

【原文】

但論陰虛而發狂者하니 此症은 婦人居多라 鬱氣不伸하고 思慕不遂라가 一時憂憤하야 遂成此症이라 或披髮行歌거나 或出門呼喚이라가 見男子則思其心上之人하고 見女子則噴其目中之刺하며 或吞炭而食泥거나 或毀容而割體하니 人生抱病至此면 亦可怜也라 此는 皆肝氣實鬱하고 肝血乾燥하야 兩關之脈이 必然沿出寸口하니 所謂欲得男子而不可得者也라 此等之病은 必須大補腎中之水하야 足以生肝하고 而少加之以安心祛痰之藥하며 又益之以解鬱降火之味하면 自然羞愧頓生하고 前狂自定하니 方名解羞湯이라 一劑即見神功하고 二劑全愈하니 不必三劑也라 吾傳方至此하야는 亦怜婦人之鬱而成此病也라 倘見左關之脈沿出寸口로대 人未發狂之前이면 即以吾方을 減十之六七하야 早爲治之면 又何至有花顛之患哉아 遠公可記之하니 汝將來有治此等之病者 故로 吾先傳此方也라

解羞湯

熟地二兩 白芍三兩 柴胡三錢 炒梔子三錢 生棗仁

五錢 菖蒲一錢 白芥子三錢 茯神一兩 麥冬一兩 北五味二錢 山茱萸五錢 丹皮五錢 當歸五錢 香附二錢 鬱金一錢 水煎服

【考察】

發狂의 原因은 대부분 熱邪이지만 간혹 虛火로 인하여 發狂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편은 陰虛로 인하여 虛火가 발생하여 생기는 發狂을 논술하였다. 「陰症陽症辨」에는 癲狂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통은 癲證은 陰症, 發狂은 陽症이지만 陰症인 癲證 가운데 陽邪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陽症인 發狂 가운데에도 陰邪로 발병하는 경우를 논술하여 陽癲陰狂⁸⁹⁾이란 말로써 표현하였다. 또한 「眞症假症辨」에는 發狂을 眞症과 假症으로 논술하였는데 眞症은 實火로 인한 것이며, 假症은 實火가 아닌 痰이 心竅를 막아서 생긴 것으로⁹⁰⁾ 논술하여 각각에 차이가 있다.

『東醫寶鑑』神門 癲狂篇에는 “양이 허하고 음이 실하면 진증이 되고 음이 허하고 양이 실하면 광증이 된다. 또한 양이 성하면 광증이 되는데 이때에는 달아나려 하고 큰소리를 외친다. 음이 성하면 진증이 되는데 이때에는 어지러워 넘어져서 정신을 잃게 된다.” 라 ⁹¹⁾하여 癲 과 狂을 구분하였고 그 症狀이 相異함을 記錄하였다.

症狀에 있어서 陰虛症은 婦人들에게 많으니 우울한 기분이 풀어지지 않고 思慕함을 이루지 못하다가 一時에 근심하여 분하게 여기는 여기는 마음이 커져서 생긴다.

第 16章 耳聾

【原文】

耳聾之宜知虛實也라 耳雖屬于腎하야 耳聾自然是腎水之虛하고 以致腎火之旺 故로 氣塞而不通하니

89)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24. “一治陽癲 一治陰狂之症”
 90)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225. “此痰迷心竅而非火毒入心”
 91)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01. “虛陰實則癲 陰虛陽實則狂 又曰陽盛則狂狂者欲奔走叫呼 陰盛則癲癲者眩倒不省”

老人多有此症이라 補其水而少加開竅之藥하면 漸漸耳聰이나 亦不能一進奏效라 其症이 飲食如常하고 手按之更覺無蟬鳴之響者가 是也라

【注釋】

- (1) 聰: 明也, 귀발을 충
- (2) 蟬鳴(선명): 매미 울음.

第 1 節 虛實鳴

【原文】

至于實症하야는 或作蟬鳴하고 或如壽響하고 或發寒作熱하며 飲食少思하고 吐痰成塊⁹²⁾하고 面目青黃하고 赤白之不同하며 時而汗出하고 時而汗止하며 汗出覺輕하고 汗止則重하며 遇食轉加하고 遇熱更甚하면 此乃實響之症也라 腎雖開竅于耳而胃爲腎之關이니 胃熱而反感風邪則火熱于中而邪壅于外하고 腎氣且隨胃氣而助焰하야 其竅反致遏塞 故로 耳亦響也라 重者는 常若有千軍萬馬洶騰之狀하고 手按之면 其聲十倍者가 是也라 若用補腎補脾之藥하면 益添其壯盛之氣而響且倍常이라 治之法은 宜用發散降火之劑라 我今留一方하야 一治虛響하고 一治實響也라 虛響은 方名爲清音湯이니 此方이 不特補腎 而兼去肺肺補心補肝者는 謂何오 蓋腎水不能自生하고 必得肺金之氣下降而後能生也라 心腎相通이라야 而耳之竅始不閉하고 欲心之通竅에 舍肝氣之相生이면 又何以能通之耶아 故로 必補肝하야 以生心火也라 況肝有補而後能瀉하야 不致耗竊⁹³⁾腎氣則腎水更有生氣矣라 此耳響之所能自愈也라 但此方必須多服爲妙하니 蓋陰不能驟生而補陰不易遽補也라 實響은 方名爲止沸湯이니 此方은 降胃中之火하고 舒肝木之氣하야 消上壅之痰하니 不治耳響而耳響者聰也라

清音湯

熟地一兩 菖蒲一錢 茯神五錢 丹皮三錢 玄蔘五錢 薏仁五錢 山茱萸五錢 麥冬五錢 北五味一錢 柴胡五分 當歸五錢 白芍五錢 白芥子三錢 水煎服

止沸湯

柴胡一錢五分 白芍五錢 石膏三錢 知母一錢 甘草一錢 青蒿五錢 半夏一錢 陳皮一錢 茯神三錢 神麴五分 蔓荊子一錢 水煎服

清音湯

熟地一兩 菖蒲一錢 茯神五錢 丹皮三錢 玄蔘五錢 薏仁五錢 山茱萸五錢 麥冬五錢 北五味一錢 柴胡五分 當歸五錢 白芍五錢 白芥子三錢 水煎服

止沸湯

柴胡一錢五分 白芍五錢 石膏三錢 知母一錢 甘草一錢 青蒿五錢 半夏一錢 陳皮一錢 茯神三錢 神麴五分 蔓荊子一錢 水煎服

【考察】

虛症은 腎水不足으로 인하여 虛火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손으로 귀를 막았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實症은 胃熱이 원인으로 손으로 귀를 막았을 때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편에서 논술하였다.

『東醫寶鑑』의 耳門의 耳響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耳響을 구분하였는데, 첫째 左右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 둘째 원인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 셋째 新舊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左右에 따라 분류한 방법은 耳響의 原因은 모두 火이며, 左耳響은 足少陽火가 원인으로 忿怒之人에 많고, 右耳響은 足太陽火가 원인으로 色慾之人에 많고, 左右耳響은 足陽明之火가 원인으로 醇酒厚味之人에게 많은 것으로⁹⁴⁾ 설명하고 있는데 본 편에서 논하고 있는 實症의 耳響은 胃熱이 원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左右耳響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思料된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간혹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고 혹은 과도소리가 들리기도 하며 혹은 惡寒發熱이 나기도 하며 飲食생각이 적고 덩어리진 痰을 토하고 顏色이 靑·赤·黃·白이 균일하지 않으며 때로

92) 底本에는 “塊”가 “碑”로 되어 있다.

93) 中醫藥本에는 “耗竊”이 “耗竅”로 되어 있으나 底本이 옳다.

94)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234. “耳響皆屬於熱…夫左耳響者足少陽火也忿怒之人多有之…右耳響者足太陽之火也色慾之人多有之…左右耳響者足陽明之火也醇酒厚味之人多有之”

는 땀이 나고 때로는 땀이 그치며 땀이 나면 증상이 조금 가벼워지고 땀이 그치면 더욱 심해지고 음식을 먹으면 더욱 가증되고 熱氣를 만나면 더욱 심해진다.

第 17章 瘡癰

【原文】

瘡癰은 皆熱毒也니 分其陰陽是矣로대 又何必別其虛實乎아 不知陰陽之中에 各有虛有實하니 倘分別不清하고 用補用瀉하면 亦自徒然이니 必辨其陰中之虛與陰中之實과 陽中之虛與陽中之實爲妙라

第 1節 陰中虛實

【原文】

陰中之虛는 若何오 瘡口平而不高하며 而血色復加黯黑者가 是也라 陰中之實은 若何오 瘡口先平而後實하고 血色紅潤者가 是也라 雖陰症은 俱是虛나 然而이나用補可分輕重이라 吾今立一方하야 皆可治之니 見血色黯黑者는 此虛之極而寒之至也라 方中에 加附子一錢 肉桂三錢하야 一連數劑면 必然黑色改爲紅色矣요 去附子再服하면 自然瘡口生肉而愈也라 若先見瘡色紅者는 不必加附桂하고 一連照前方服之면 必全痊矣라 倘不知陰症之虛實而亂用附桂하면 適難以取敗也라

第 2節 陽中虛實

【原文】

陽中之虛者는 若何오 瘡口雖高나 忽然色變而不紅하면 此는陽症이欲變陰症之兆니 急宜用金銀花三兩 歸身一兩 附子一片重二分 生甘草三錢하야 煎湯飲之 則色即變紅矣니 此方名은 轉陽化毒丹이라 此症은 因病人이原不十分健旺에 或又加色欲 惱怒하면 一時變症이니 刻不可遲라 一見色變即用此方하면 可轉危爲安也라

陽中之實은 若何오 瘡口既高突而巍然하며 而色又鮮紅하고 而有光者가 是也라 方用瀉陽祛毒丹하니 此方은 治陽症之毒最佳요 一劑即出毒하고 二劑即毒淨하고 三劑即全痊也라 若初起之時而高突者는 一劑

立劑이니 神方也라 又不可不知之也라

轉陽高突湯

人蔘五錢 黃芪一兩 遠志三錢 白朮一兩 金銀花一兩 生甘草三錢 水煎服

瀉陽祛毒丹

金銀花一兩 蒲公英五錢 大力子三錢 天花粉三錢 生甘草三錢 白礬三錢 防風一錢 水煎服

轉陽高突湯

人蔘五錢 黃芪一兩 遠志三錢 白朮一兩 金銀花一兩 生甘草三錢 水煎服

瀉陽祛毒丹

金銀花一兩 蒲公英五錢 大力子三錢 天花粉三錢 生甘草三錢 白礬三錢 防風一錢 水煎服

【考察】

「陰症陽症辨」에 瘡癰의 陽症은 有餘한 火가 發泄되지 못하거나 冷水를 마셔서 水漿이 막혀서 陽毒이 된 것이 原因이며, 陰症은 富貴한 사람이 榮화 로움에 遏매여 우울하거나 혹 房勞로 腎水가 부족 하여 發生된 虛火가 原因이나 陰症과 陽症 모두 毒氣가 原因인 것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⁹⁵⁾ 하였고, 本편에도 瘡癰의 原因이 모두 熱毒이라고 밝혀 陰症과 陽症을 구분하기만 해도 되나 다시 陰中之虛 陰中之實·陽中之虛·陽中之實로 구분하였다. 陰症의 虛證은 “虛之極而寒之至”로서 陰症의 實症에 비하여 重症인 경우에 해당되며, 陽症의 虛症은 陽症이 陰症으로 변화려는 것으로서 陽症의 實症에 비하여 危急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本편의 虛症과 實症은 瘡癰의 豫後에 있어 虛症은 重症·危急한 경우를, 實症은 輕症·不急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 諸瘡門에서는 大風瘡 白癩瘡 天疱瘡

95)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59. “陽症之瘡乃火之有餘不能發泄或飲涼手水漿擁遏而成陽毒 陰症之瘡必生于富貴之人或繁華而兼憂鬱或氣惱而帶房勞內水既乾內火自熾蘊毒...然而陰陽雖有各別而毒氣總無大異也”

96)로 瘡을 구분하였고, 癰疽門에서는

癰疽가 發生하는 理由에 대하여 論述하였는데 음에 양이 막히면 옹이 생기고 양이 음에 막히면 저가 생기는데 생기는 곳은 일정하지 않다.⁹⁷⁾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肺癰 心癰 肝癰 腎癰 胃脘癰 腸癰 腹癰 臂癰 腎癰 懸癰 便癰 囊癰 로 11種으로 癰을 구분하였다.

症狀에 있어서 陰中の 虛症은 瘡口가 평평하여 높지 않고 血色이 다시 어두운 것이다. 陰中の 實症은 瘡口가 먼저는 평평했다가 나중에 充滿하고 血色이 紅潤한 것이다. 陽中の 虛症은 瘡口가 비록 높으나 솟았으나 갑자기 色이 변하여 홍색이지 않으면 이는 陽症이 陰症으로 변하려는 징조이다. 陽中の 實證은 瘡口가 크고 높으며 瘡口가 鮮紅色이면서 光宅이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瘡癰 에 있어서는 毒氣가 原因인것은 같으나 본편은 형태에 따라 虛實 陰陽을 구별하여 각각의 處方을 構成하였으며 『東醫寶鑑』에서는 部位에 따라 區分하여 各各의 處方을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第 18章 大小便閉

第 1節 大便閉結症

【原文】

大便之閉結은 實有虛實之分이라 實者는 乃風火結于臟腑之間 故로 成閉結之症이니 手按之而痛者가是也라 虛者는 雖亦閉結하야 覺肛門艱澁하고 有不能暢遂之狀이나 然이나 手按腹中平平無痛하고 飲食如常하야 亦不十分緊急이라 以此辨虛實하면 斷斷不爽하니 其方은上文에已講하니 茲不再贅라

第 2節 小便閉結症

第 1項 小便閉結虛症

【原文】

至于小便之閉塞하야는 虛實從何而分고 虛者는

乃膀胱寒甚하야 內無火氣之化源 故로 爾寒如水凍而不能出이라 其症亦覺腹痛而難忍이나 然이나熱手按之면 反覺快然하며 服熱湯薑水則快로대 飲寒湯冷汁而痛加者가是也라 古人이 用五苓散에多加肉桂亦能奏功이나 但此方은止可救急于一時而不能久遠之寬快라 吾今定一方하니 實可長服有功하고 實非旦夕之取效也라 方名은溫水散이니 此方은 利水而不耗氣하고 去濕而溫其源하야 久暫皆可奏功하니 勝于五靈散多矣라

溫水散

人蔘三錢 白朮五錢 肉桂二錢 茯苓五錢 升麻五分 車前子三錢 薏仁一兩 蓮子三錢連心用 水煎服

溫水散

人蔘三錢 白朮五錢 肉桂二錢 茯苓五錢 升麻五分 車前子三錢 薏仁一兩 蓮子三錢連心用 水煎服

第 2項 小便閉結實症

【原文】

治小便閉結之實症은 奈何오 盖膀胱有火邪壅于小腸之口而不得下達하고 且肺金又熱하야 不傳清肅之氣而反傳溫熱之氣 故로 點滴不能出하야 以致腹痛而不可按하고 急迫之狀에往往至于雙目之紅腫하고 而心煩意躁하고 刻不可眠이라 倘治之不得法하면 有數日不便而死者矣라 我今定一方하야 以救此危症하니 方名疏浚丹이라 此方之奇는 奇在用寄奴與王不留行二味走而不守하며 又能瀉膀胱之火나 然이나 過于下行하야 加入升麻以提其氣하니 譬如水注之法은 上升而下即降也라 況方中에又有白朮薏仁하야以健脾土而仍是利濕之聖藥이니 自然手到病除요 下喉而水如奔決也라 設徒以五靈散以利水而不知升提之法이면 亦徒然利之也라

疏浚丹

車前子五錢 劉寄奴三錢 肉桂一分 王不留行三錢 升麻一錢 薏仁一兩 豬苓三錢 白朮五錢 水煎服

疏浚丹

96)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556.

97)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534. “陰滯於陽則發癰 陽滯於陰則發疽所發無定處也”

車前子五錢 劉寄奴三錢 肉桂一分 王不留行三錢
升麻一錢 薏仁一兩 猪苓三錢 白朮五錢 水煎服

【考察】

大便不通의 實症의 原因은 風火가 臟腑의 사이에 맺힌 것으로 손으로 下腹部를 눌렀을 때 痛症이 있고, 虛症의 原因은 비록 본 편에서 나오지는 않으나 「陰症陽症辨」에 陰火가 原因이며 陰火는 相火로서 곧 虛火이니⁹⁸⁾ 이는 腎水가 虛損되어 大腸을 滋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것으로⁹⁹⁾ 설명하였다. 또한 본 편에서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다시 舉論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면 大便不通의 陰症과 虛症, 陽症과 實症을 同一視한 것으로 思料된다.

小便不通의 虛症은 治法을 利氣去濕에 중점을 둔 반면에 陰症은 補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아 虛證은 膀胱의 氣化가 不足한 것이며, 陰症은 陰虛가 甚한 것이다. 또한 實症의 治法은 膀胱의 邪火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陽症은 利水逐水에 중점을 둔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小便門 小便不通篇에서는 “ 胞(脬)의 열이 방광으로 옮겨가면 滯證(癰證)이 생겨 피오름이 나오게 된다. 이런데는 八定散(팔정산)에 목향을 넣어서 주로 쓴다.”¹⁰⁰⁾

또 大便門 大便不通篇 에는 “열사(熱邪)가 속에 들어가면 장(胃)에 마른 대변(燥糞)이 있게 된다. 삼초(三焦)에 열이 잠복해 있으면 진액이 속에서 마른다. 이렇게 되면 대장에 열을 끼게 된다.”¹⁰¹⁾ 라 하였다.

症狀에 있어서 大便의 實症은 風火가 臟腑 사이에 結滯되어 大便을 보지 못하는 病症이 된 것이니 손으로 下腹部를 눌러서 아픈 것이 어 것이다. 虛症

은 大便을 비록 보지 못하여 滯門이 막힌 듯 하고 시원하게 大便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있으나 손으로 下腹部를 누르면 편평하고 痛症이 없으며 飲食은 正常과 같이 먹어서 또한 緊急하지가 않은 것이다.

또 小便의 虛症은 膀胱에 寒이 심하여 안에 火氣의 化源이 없으므로 寒이 마치 얼음이 얼은 것처럼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따뜻한 손으로 누르면 도리어 시원해지고 뜨거운 물 등을 마시면 상쾌해진다. 實症은 膀胱에 火邪가 있어서 小腸의 下口에 壅滯되어 아래로 通達하지 못하고 또 肺金이 熱하여서 淸肅한 飢를 傳하지 못하여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腹痛이 발생하고 急迫한 상태가 자주 두 눈이 붉게 붓는데 이르기도 하고 마음이 번거롭고 淸○신이 산란하며 잠시도 잠을 잘 수 없다.

이상으로 종합해보면 본편에서는 大便不通의 原因은 熱이 大腸이나 小腸에 들어가 津液을 말리고 그러므로 燥糞이 만들어져서 不通하는 것으로 思料되며, 小便不通의 原因은 虛火나 實火가 膀胱에 맺혀 小便이 不通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第 19章 大渴

【原文】

大渴之症은 自是熱症이니 如何有虛實之分이오

第 1節 大渴虛症

【原文】

不知腎水大耗면 腎火沸騰하여 變爲消渴之病이니 非虛而何리오 往往有飲水一斗而反溺二斗者하니 此水不知從何而來하고 往往使人不可測度하니 雖消症이 有上中下之分로대 而渴症則一也니 一者何오 腎水之虛로 以致腎火之旺也라 故로 治消渴之症에 無論上中下하고 俱以補腎爲先이라 仲景張公이 定八味地黃湯은 原治漢武帝消渴之症이로대 其方實是神奇하니 能遵守此方하여 大劑煎服이면 又何患虛渴之難治哉아 但醫道는 苦方之不多와 治法之最少하여 我今再傳一方하니 可與仲景張公并傳千古하고 治渴症實是奇絶하니 方名止渴仙丹이라 早午晚에 各飲一碗하면 一日而渴減半하고 二日而渴減半하고 三日而渴止

98)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30. “陰火者相火乃虛火也”

99)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30. “若夫腎水虧損不能滋潤于大腸以致糞如羊屎者…此症乃陰火作祟也”

100)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70. “胞移熱於膀胱則癰尿血…膀胱不利爲癰八正散加木香主之”

101)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96. “熱邪入裏則胃有燥糞三焦伏熱則津液中乾此大腸之挾熱然也”

하고 四日而全愈라 願컨데人勿驚疑此方하고 當遵守而敬服이면 自能轉逆爲安也라

止渴仙丹

熟地三兩 麥冬三兩 玄參三兩 天冬三兩 肉桂三錢
山茱萸三兩 北五味一兩 車前子一兩 牛膝一兩 芡實一兩 水十碗 煎三碗 早午晚服 每服一碗

止渴仙丹

熟地三兩 麥冬三兩 玄參三兩 天冬三兩 肉桂三錢
山茱萸三兩 北五味一兩 車前子一兩 牛膝一兩 芡實一兩 水十碗 煎三碗 早午晚服 每服一碗

第 2節 大渴實症

【原文】

其大渴實證은 舍竹葉石膏湯하고 原無第二之方이라 然而나石膏過於酷烈하야 吾今更定一方하니 名爲解渴神丹이라 用石膏一劑之外하고 卽用此湯이로대 連服二劑면 以伐石膏之峻烈을 未爲不可也라 大約實證之渴은 舌如芒刺하고 目紅而突하고 發狂發斑者是니 又不可不知라

解渴神丹

玄參四兩 生地二兩 茯苓一兩 甘菊花一兩 水煎服

解渴神丹

玄參四兩 生地二兩 茯苓一兩 甘菊花一兩 水煎服

【考察】

大渴의 實症은 熱症에 속하고, 熱症이라도 腎水가 매우 不足하여 腎火가 沸騰한 경우는 虛症에 속한다.

『東醫寶鑑』消渴門에는 소갈을 上消 中消 下消로 나누어 놓았는데, “상소(上消)란 혀가 붉어지고 갈라지며 갈증이 몹시나서 물을 켜는 것”이라 하였고¹⁰²⁾ 中消는 중소(中消)란 “음식을 잘 먹으면서도 여위고 저절로 땀이 나며 대변이 굳고 오줌이 잦은

102)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506. “上消者舌上赤裂大渴引飲脬消是也”

것”¹⁰³⁾이라 하였고 下消는 하소(下消)란 “빈조(煩燥)하고 물을켜며 컷바퀴가 거명게 되도록 마르며 오줌이 기름같고 허벅다리마 무릎이 마르며 가늘어지는 것”¹⁰⁴⁾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症狀에 있어서 虛症은 腎水가 심하게 耗損되어 腎火가 沸騰하여 消渴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實症은 혀에 헛바늘이 돋고 눈은 充血되면서 돌출이 되고 발광하고 반점이 있는 것이다.

第 20章 大汗

【原文】

大汗亡陽은 明是虛症이어늘 如何分虛實也아 不知發狂發斑之症이니 非實而何오

第 1節 大汗實症

【原文】

其症이 大渴引飲하고 飲水至半桶或一桶者로 其汗必如雨之來하야 不可止遏하면 蓋熱乘水勢而外泄也라 無水濟之往往無汗은 蓋乾燥之極이니 汗從何來아 必得水濟之而汗乃出하니 此汗은 乃實而非虛也라 法當用竹葉石膏湯하야 大劑煎飲이라야 始能止汗而解其熱이라 然而汗多必致亡陽하니 石膏湯中에 亦宜多用人參하야 以防亡陽之禍라 是實證도 亦宜用補也니 況虛症之汗乎아

第 2節 大汗虛症

【原文】

虛症之汗은 或如潮熱而汗發星星하고 或如珠之出而閣住不流하고 或夜間有汗而晝無汗하고 或下身有汗而上身乾燥하며 見風則畏하고 見寒則止하니 大非陽症之見風寒而無畏也라 若誤認¹⁰⁵⁾作白虎陽症而亦用竹葉石膏湯則死亡頃刻이니 可不慎歟아 然則當用何藥以治之乎아 莫妙用補血湯也니 此方으로治之則汗止而身快라 吾加黑薑五味하니 實有妙用이라 歸芪

103)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506. “中消者善…大便硬小便數所謂癉成爲消中者是也”

104)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506. “下消者煩燥引飲…膝枯細所謂焦煩水易虧者是也”

105) 底本에는 “誤認”이 “悞認”으로 되어 있다.

는 乃生血補氣之品이니 氣中則皮毛有衛而汗自然不致外泄이라 當歸生血則虛熱自退하니 而汗又何致外越耶아 黑薑은 守而不走하고 五味는 酸而能斂하야 自然氣血相安하니 何從發汗이리오 所以相濟而成功也라

補血湯

當歸一兩 黃芪二兩 乾薑炒黑二錢 北五味一錢 水煎服

【考察】

본편에서 虛症의 경우에 “其汗必如雨之來 不可止遏”이라 하고, 實症의 경우에 “或如潮熱而汗發星星 或如珠之出而閣住不流”라고 표현한 것과 「陰症陽症辨」에서 陽症의 경우에 “其汗或如雨或如珠”¹⁰⁶⁾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본편과 「陰症陽症辨」에서 논술하고 있는 汗症은 일반적인 自汗이나 盜汗을 가리키지 않고 모두 亡陽 또는 亡陰의 경우에 나타나는 汗症을 언급하고 있다.

虛症은 亡陽으로 인한 것이니 陽虛를 뜻하고, 實症은 實熱이熾盛해서 나타나는 熱症에 속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東醫寶鑑』津液門 亡陽證篇에서는 汗이 그치지 않는 것을 亡陽證이라 하였으며 또 汗을 낼수 없는 것 또한 亡陽證이라 하였으며 증상으로는 가슴이 답답하며 얼굴이 퍼렇고 피부에 쥐가 나는 사람은 難治이고, 얼굴색이 노랗고 수족이 따뜻한 사람은 치료할수 있다¹⁰⁷⁾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 보는 “汗을 낼수 없는 것” 또한 亡陽證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진액이 고갈되어서 그런 것이므로 亡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症狀에 있어서 實症은 渴症이 아주 심해서 물을 마시는데 마시는 물의 약이 아주 많고 그러면서도 汗을 비 오듯 흘려서 汗을 그칠 수 없는 것이다. 虛症은 潮熱하면서 汗이 송글송글 나고 혹은 汗이 방울방울 나오나 달라붙어 흐르지 않고 혹은 夜間에

는 汗이 나나 낮에는 汗이 나지 않고 혹은 下半身에는 汗이 나나 上半身은 나지 않으며 汗을 쇄면 두려워하고 차가운 것을 보냄 그친다.

IV. 結語

『辨證玉函』은 74種類의 病症을 卷之一 「陰症陽症辨」, 卷之二 「虛症實症辨」, 卷之三 「上症下症辨」, 卷之四 「眞症假症辨」의 4卷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가운데 卷之二 「虛症實症辨」은 咳嗽를 비롯하여 모두 20가지의 病증을 虛症과 實症으로 나누어 辨證하였다.

1. 咳嗽는 初嗽는 實症, 久嗽는 虛症으로 분류하였고, 實症은 風寒邪가 原因이며, 虛症은 肺虛가 原因인데 肺虛하게 된 理由를 다시 脾虛肝經之虛腎虛로 구분하였다.

2. 喘症의 實症은 原因이 風邪로서 外感病이며, 虛症은 腎虛가 原因으로 구분하였다.

3. 雙蛾의 實症은 原因이 邪氣實로서 外感病이며, 虛症의 原因은 正氣虛로서 內傷病으로 實症과 虛症을 구분하였다.

4. 目痛의 實症은 邪火가 實한 것이 原因이며, 虛症은 肝腎虛가 原因으로 구분하였다.

5. 吐症을 朝吐·暮吐·飽吐·飢吐·蟲吐·水吐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原因에 따른 分類로서 朝吐는 陽氣虛, 暮吐는 陰氣虛, 飢吐는 邪火之實, 飽吐는 寒邪之實, 蟲吐는 다시 熱症은 實症, 寒症은 虛症으로 구분하였으며, 水吐는 吐黃水를 實症, 吐清水를 虛症으로 구분하였다.

6. 瀉症을 實症과 虛症으로 구분하고, 虛症을 다시 脾瀉·腸瀉·腎瀉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原因에 따른 分類이다.

7. 頭痛을 實症과 虛症으로 구분하였는데, 實症의 原因은 外邪와 火이다. 虛症은 陽虛와 陰虛로 구분하였는데 陽虛는 脾胃之氣의 虛이며, 陰虛는 肝腎之氣의 虛가 原因이다.

106) 陳士鐸 撰. 辨證玉函. 서울. 醫聖堂. 1990. p.64.

107)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25. “凡汗多不止謂之亡陽 又汗不得出亦謂之亡陽如心痞胸煩面青脣靨者 難治色黃手足溫者”

8. 臂痛의 實症은 實邪가 원인이며, 虛症은 眞氣의 不足이 원인이다.

9. 足痛의 原因은 虛症이나 實症이 모두 水濕인 것에는 같으나, 다만 實症은 반드시 浮腫의 증상이 있는 반면에 虛症은 浮腫이 없는 차이가 있다.

10. 齒痛은 「虛症實症辨」임에도 齒痛을 陽症과 虛症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곧 陽症은 實症이며, 陰症은 虛症임을 뜻한다.

11. 心痛은 眞心痛이 아니며, 「陰症陽症辨」과 마찬가지로 邪氣의 性質에 따라 分類하였다.

12. 脇痛의 實症은 ‘感冒風邪’가, 虛症은 ‘觸動怒氣’가 原因이며, 이는 原因에 따른 分類이다.

13. 腹痛의 實症은 燥屎가 大腸 안에 있어서 火가 발생한 것이고, 虛症은 虛寒之氣가 下焦에 있어서 생긴 것으로 분류하였다.

14. 吐血은 發病原因에 따라 傷暑와 大怒로 인한 것은 實症, 房勞勞役氣鬱로 인한 것은 虛症으로 분류하였다.

15. 發狂의 原因은 대부분 熱邪이지만 간혹 虛火로 인하여 發狂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편은 陰虛로 인하여 虛火가 발생하여 생기는 發狂을 논술하였다.

16. 耳聾의 虛症은 腎水不足으로 인하여 虛火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손으로 귀를 막았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實症은 胃熱이 원인으로 손으로 귀를 막았을 때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편에서 논술하였다.

17. 瘡癰 原因은 모두 熱毒이라고 밝혀 陰症과 陽症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陰中之虛陰中之實陽中之虛陽中之實로 구분하였다.

18. 大便不通의 陰症과 虛症, 陽症과 實症을 同一視하였으며, 小便不通의 虛症은 膀胱의 氣化가 不足한 것이며, 陰症은 陰虛가 甚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19. 大渴의 實症은 熱症에 속하고, 熱症이라도 腎水가 매우 不足하여 腎火가 沸騰한 경우는 虛症에 속한다.

20. 大汗은 일반적인 自汗이나 盜汗을 가리키지 않고 모두 亡陽 또는 亡陰의 경우에 나타나는 汗症을 언급하고 있다. 虛症은 亡陽으로 인한 것이니 陽

虛를 뜻하고, 實症은 實熱이 熾盛해서 나타나는 熱症에 속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附錄

辨證玉函 陰症陽症辨에 나오는 處方목록
(가다나순)

開日散

白芍三錢 白茯苓三錢 柴胡二錢 半夏二錢
車前子二錢 當歸一錢 陳皮一錢 甘草一錢
蒼朮一錢 黃連一錢 炒決明一錢 天花粉一錢
水煎服。

祛寒定痛湯

白朮三兩 茯苓五錢 附子三錢 肉桂三錢
人參三錢 菖蒲一錢 水煎服。

導水止流湯

車前一兩 茯苓一兩 白芍一兩 白朮五錢
澤瀉五錢 甘草三錢 陳皮一錢 肉桂一分 神
麩五分 水煎服。

豆根神散

山豆根三錢 甘草三錢 桔梗三錢 青黛三錢
天花粉三錢 半夏二錢 麻黃五分 水煎服。

扶火消水湯

白朮一兩 山藥一兩 芡實一兩 薏仁五錢
車前五錢 茯苓五錢 肉桂三錢 五味二錢 水
煎服。

瀉火神丹

梔子五錢 茯苓五錢 蒼朮三錢 白芍三錢
管仲三錢 甘草三錢 乳香一錢 廣木香一錢
枳殼一錢 炒黑乾薑一錢 水煎服。

散邪止嗽丹

白芍五錢 生地五錢 茯苓三錢 麥冬二錢
柴胡一錢 黃芩一錢 石膏一錢 桔梗一錢 甘
草一錢 半夏一錢 陳皮五分 水煎服。

散癲湯

白芍一兩 白朮五錢 當歸五錢 炒梔子五錢
白芥子三錢 丹皮三錢 茯苓三錢 甘草一錢
柴胡一錢 菖蒲五分 陳皮五分 水煎服

安腹止痛丹

白芍五錢 白朮五錢 麥芽二錢 半夏二錢
甘草一錢 肉桂一錢 乾薑一錢 山楂十粒 水
煎服。

養日至神湯

熟地五錢 山茱萸五錢 甘菊花三錢 地骨皮三
錢 當歸三錢 白芍三錢 茯苓三錢 葳蕤三錢
枸杞子二錢 白芥子一錢 柴胡三分 水煎服。

陰陽通治丹

金銀花三兩 當歸一兩 車前子五錢 甘草三錢
水煎服。

引火止痛湯

茯苓一兩 白朮五錢 人參二錢 黃連一錢
陳皮一錢 神麩一錢 麥冬一錢 砂仁一粒 藿香五
分 生薑三片 水煎服。

濟火神丹

山藥一兩 熟地一兩 白朮一兩 山萸五錢
茯苓五錢 芡實五錢 肉桂三錢 五味二錢 肉
果二枚(肉豆蔻) 水煎服。

清解止痛丹

芍藥五錢 白芥子三錢 茯苓三錢 當歸三錢
炒梔子二錢 石膏二錢 枳實一錢 白朮一錢
山楂二十粒 厚朴一錢 甘草一錢 柴胡八分
水煎服。

解狂散

玄參二兩 熟地一兩 白芍五錢 當歸五錢
山茱萸五錢 麥冬五錢 生地五錢 白芥子三錢
北五味一錢 菖蒲三分 水煎服。

護陰止嗽丹

熟地五錢 麥冬五錢 紫苑五錢 百部五錢
天門冬三錢 玄參三錢 沙參三錢 桔梗二錢
白芥子二錢 甘草

參考文獻

<단행본>

1. 柳長華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 陳士鐸 醫學全
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 696,
1137, 1144.
2. 洪元植 譯. 國譯石室秘錄. 서울. 書苑堂.
3. 盧瑛均 編譯. 外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4.
4. 盧瑛均 編譯. 辨證奇聞講義 本草秘錄·辨證玉函.
대전. 문원출판사. 2005.
5. 盧瑛均 編譯. 新編辨證奇聞上·下. 大田. 周珉出
版社. 2005.
6. 盧瑛均 編譯. 外科秘錄. 大邱. 大邱廣域市 韓醫
師會 學術委員會. 2007.
7. 徐鍾哲. 辨證玉函 「陰症陽症辨」에 대한 研究.
益山.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7.
8. 陳士鐸 撰. 王之策 訂定. 辨證玉函. 서울. 醫聖
堂. 1990. p.10, 14, 15, 24, 26, 27, 30, 35,
36, 37, 38, 41, 42, 46, 47, 50, 51, 52, 54,
55, 56, 59, 64, 79, 80, 85, 224.
9.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p.101,
108, 125, 170, 182, 196, 247, 234, 247,
252, 262, 274, 282, 298, 299, 301, 467,
474, 506, 534, 556.
10. 清 吳謙, 劉裕鐸 等. 欽定四庫全書49卷, 醫宗金
鑑. 서울. 大星醫學社. 1995.
11. 신태양사 편집국 백과사전부. 原色最新醫療大百

科事典, 서울, 新太陽社, 1991, p.17.

<논문>

1. 金尙實·羅永雅, 古代 韓國의 度量衡 考察, 東아
시아食生活學會誌, 1994, 4권 1호, p.7.

<기타>

1.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7.
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서울, 도
서출판 정담, 1998.
3.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
輔社, 2000.
4. 常武印書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
版社, 1978.
5. 原色天然藥物 大辭典, 서울, 南山堂, 1989.
6. 新東醫學辭典, 서울, 東方醫學社, 2001.
7. 中國語大辭典編纂室 編, 現代中韓辭典, 서울, 高
大民族文化研究院, 1993.
8.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
輔社, 2000.

